

20회 세미나 자료집
면지교체

행사 일정



시 간	내 용	사회/좌장
14:00 ~ 14:30	등 록	
14:30 ~ 14:40	개회식	사회 : 박영식 교수 (고려대학교)
	개회사 :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주제발표		
14:40 ~ 15:40	세계 곡물수급현황과 미래전망 ▶ 성명환 박사 (농촌경제연구원)	좌장 : 권대영 박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의 곡물조달 정책과 현황 ▶ 오정규 처장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제 곡물시장의 구조와 특징 ▶ 김민수 대표 (애그스카우터)	
15:40 ~ 15:50	휴 식	
종합토론		
15:50 ~ 17:00	토론자 ▶ 강창윤 대표 (미국소맥협회) ▶ 고재모 교수 (협성대학교 국제통상학과) ▶ 김한호 교수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 안병일 교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 전한영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좌장 : 신동화 명예교수 (전북대학교)
17:00	폐 회	

목 차



* 개 회 인 사 이철호 이사장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1

* 주제발표

좌 장 - 권대영 박사 (한국식품연구원)

1. 세계 곡물수급현황과 미래전망

성명환 박사 (농촌경제연구원) 5

2. 한국의 곡물조달 정책과 현황

오정규 처장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9

3. 국제 곡물시장의 구조와 특징

김민수 대표 (애그스카우터) 37

* 종합토론

좌 장 - 신동화 교수 (전북대 명예교수)

* 토 론 자 - 강창윤 대표 (미국소맥협회) 59

- 고재모 교수 (협성대학교 국제통상학과) 65

- 김한호 교수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71

- 안병일 교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77

- 전한영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83

개 회 인 사

이 철 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다망하신데도 한국 식량안보연구재단이 주최하는 제20회 식량안보 세미나 - 세계 곡물시장의 현황과 대응방안 - 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저희 재단이 2017년도 연구과제로 수행한 내용을 발표하고 여러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식량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해 먹고 있지만 세계 식량 시장에 대한 이해와 대응능력이 지극히 취약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수년 전 정부는 해외 곡물유통라인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승인받았지만 한 푼도 쓰지 못하고 포기하는 해프닝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과 자주율이 동일한 후진국형 식량공급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곡물 메이저나 일본의 중간거래상을 통해 곡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일본 동경에서 열린 호주밀수출공사(AWB) 리셉션에서 일본 참석자들이 ‘한국은 우리회사의 중요한 고객’이라며 나를 반겼습니다. ‘한국에도 큰 회사들이 많은데 어째서 곡물을 일본회사를 통해 수입하는가?’고 물었더니 한국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970년대부터 우리는 시카고 곡물거래소에 정부나 대기업의 직원들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때 파견 나가는 분들에게 하는 인사가 ‘한 2-3년 잘 구경하고 오십시오’ 였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그곳에 파견되면 대개



정년 할 때까지 그곳에서 근무합니다. 이들은 밤을 새워 그 시장을 조사하고 연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세의 차이, 시스템의 차이가 3-40년 후 우리가 일본 에이전트를 통해 곡물을 사오게 만든 것입니다.

세계 곡물시장은 선진국들의 곡물메이저와 중간거래상들이 철옹성처럼 짜놓은 요새와 같은 조직입니다. 그 유통라인에 새롭게 끼어들기는 거의 불가능 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년 전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경험한 실패담과 일본 젨노가 20여 년을 노력하여 미국에 설립한 곡물회사의 성공사례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앞으로 20년 후에 우리가 세계 곡물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발표를 하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성명환 박사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오정규 처장님, 애그스카우트의 김민수 사장님께 감사드리며, 좌장을 맡으신 한국식품연구원의 권대영 박사님, 전북대 신동화 명예교수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하신 미국소맥협회 강창윤 대표님, 협성대 고재모 교수님, 서울대 김한호 교수님, 고려대 안병일 교수님,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전한영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재단의 연구와 학술활동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재단 이사님과 후원자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주제발표 좌장



한국식품연구원
권대영 박사

학 력

서울대학교 식품생화학 학사
KAIST 식품생화학(효소) 석사
KAIST 생명과학(단백질) 박사
MIT, 생물학과 단백질공학 Post-doc

경 력

농수산물유통공사 종합식품연구원 선임연구원
숙명여자대학교 생명과학과 겸임교수
한국대사체학회 부회장, 한국식품영양과학회 부회장
한국식품연구원 12대 원장
현)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
현) 과학기술연합대학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대표교수
현) 한국영양학회 부회장, 대한발효식품문화포럼 회장,
한국식품건강소통학회 회장
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농수산학부 정회원
현) 편집장 J. Ethnic Foods, Elsevier, EU



1. 세계 곡물수급현황과 미래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성명환





Profile

성명환

학력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석사
미국 미주리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박사

경력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 지리적표시등록심의분과위원회 심의위원
전) 국제곡물정보분석협의회 위원장

세계 곡물수급 현황과 미래 전망

제20회 식량안보세미나
2017. 11. 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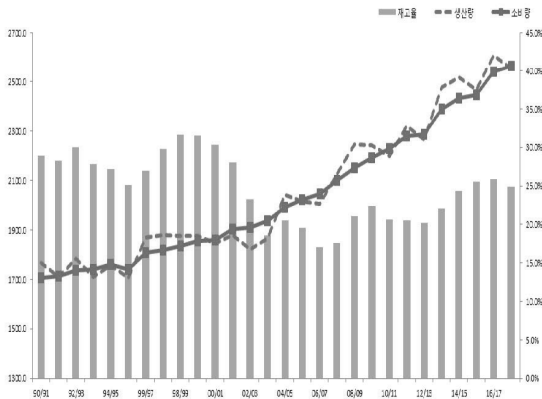
목 차

1. 세계 곡물시장 동향
2. 세계 곡물수급 변동 요인
3. 중장기 세계 곡물수급 전망
4. 시사점

세계 곡물시장 동향

□ 세계 전체 곡물수급 동향

- 전체 곡물(쌀, 밀 및 잡곡) 생산과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생산은 연도별 변동성 큼
 - 교역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 9.2%에서 2016년 16.5%로 증가
- 세계 곡물 수급여건은 2000년대 중반 악화되었다가 최근에는 개선



연도	생산량	소비량	교역량	재고율(%)
1960/61	824	815	76	24.9
1970/71	1,079	1,108	119	17.4
1980/81	1,429	1,440	212	21.4
1990/91	1,769	1,707	206	29.0
2000/01	1,845	1,860	229	30.4
2010/11	2,199	2,228	285	20.6
2016/17	2,608	2,542	430	25.8

자료: 미국 농무부(USDA)

(단위: 백만 톤)

세계 곡물시장 동향

□ 주요 곡물의 수급 동향

- 2000년대 이후 생산량: 쌀 점진적 증가, 대두 및 옥수수는 대폭 증가
- 옥수수의 경우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 최근에는 생산량이 대폭 증가
- 쌀, 밀, 옥수수, 대두의 수급은 안정세 유지

<주요 품목의 생산량 및 소비량 동향(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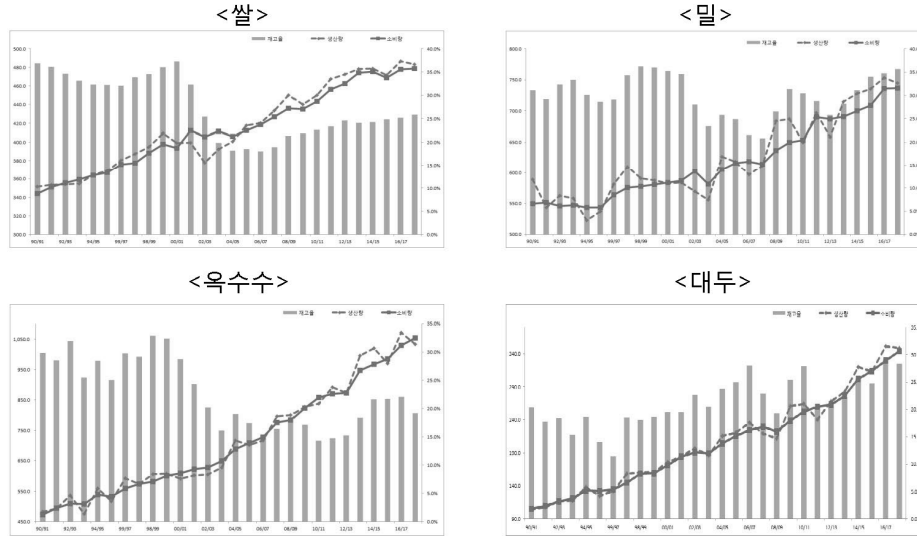
구분		2000/01	2005/06	2010/11	2015/16	2016/17
쌀	생산량	399.2	417.9	450.1	471.7	486.4
	소비량	393.7	412.3	443.2	468.6	477.9
밀	생산량	582.8	618.8	649.6	735.3	753.3
	소비량	584.0	616.2	653.4	709.1	736.4
옥수수	생산량	591.5	701.2	837.4	969.6	1,071.2
	소비량	609.0	707.9	857.7	985.1	1,029.1
대두	생산량	175.8	220.8	264.4	313.7	351.4
	소비량	171.4	215.8	252.6	314.3	329.8

자료: USDA

세계 곡물시장 동향

□ 1990년대 이후 품목별 수급 추이

- 쌀 및 대두 수급 안정, 밀 생산 불안정 및 최근 증가, 옥수수 생산 증가
- 재고율은 1990년대 높은 수준 유지, 2000년대 이후 하락하여 최근 상승 추세



자료: 미국 농무부(USDA)

세계 곡물시장 동향

□ 곡물교역량 동향: 수출

- 상위 3개 수출국의 비중 증가(2016년)
- 쌀 62.1%, 밀 45.9%, 옥수수 74.3%, 대두 87.7%
- 세계 곡물 교역량 증대와 수출국의 과점화 진행

품목	수출량(백만 톤)	수출국별 비중, 2016(%)
쌀	42.03	인도(25.0), 태국(23.8), 베트남(13.3), 파키스탄(9.5), 미국(8.8), 미얀마(3.8), 기타(15.8)
밀	180.33	미국(15.6), 러시아(15.3), 유럽연합(15.0), 호주(13.3), 캐나다(11.1), 우크라이나(9.9), 아르헨티나(6.2), 카자흐스탄(3.8), 기타(12.8)
옥수수	158.68	미국(35.6), 브라질(21.4), 아르헨티나(17.3), 우크라이나(12.0), 기타(13.7)
대두	144.61	브라질(43.2), 미국(38.6), 아르헨티나(5.9), 파라과이(4.4), 기타(7.9)

자료: 미국 농무부(USDA)

세계 곡물시장 동향

□ 곡물교역량 동향: 수입

- 각국은 자국의 소비를 우선, 곡물 교역량의 비중은 공산품에 비해 낮음
 - 쌀 9.2%, 밀 24.2%, 옥수수 15.2%
 - 대두 42.0%
- 소수의 곡물 수출국과 달리 다수의 수입국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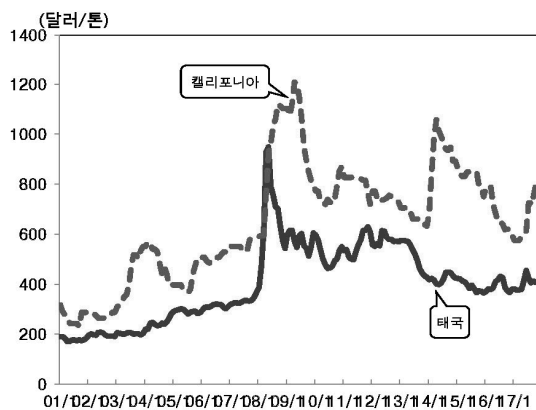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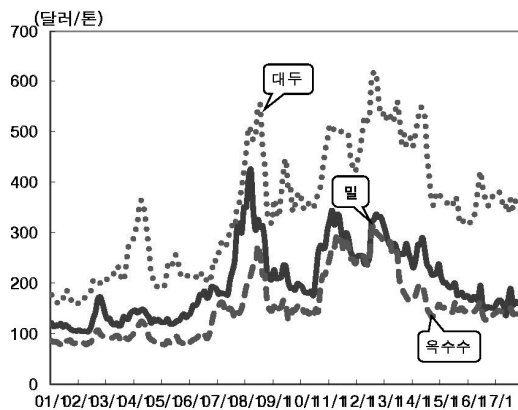
품목	수입량(백만 톤)	수입국별 비중, 2016(%)
쌀	38.58	중국(13.0), 중동(8.9), 나이지리아(5.7), 유럽연합(4.8), 중미 및 캐리비안(4.8), 필리핀(2.6), 멕시코(2.1), 일본(1.8), 기타(56.3)
밀	180.33	북아프리카(16.1), 동남아시아(14.1), 중동(10.0), 브라질(4.0), 인도(3.4), 중국(2.4), 기타(50.0)
옥수수	137.97	일본(10.9), 멕시코(10.7), 동남아시아(9.9), 유럽연합(9.5), 한국(7.1), 이집트(6.5), 중국(2.2), 기타(43.2)
대두	140.6	중국(63.3), 유럽연합(10.4), 멕시코(3.0), 일본(2.3), 기타(21.0)

자료: 미국 농무부(USDA)

세계 곡물시장 동향

□ 국제 곡물가격 변화 추이

-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락 반복
 - 2004년 세계 쌀 재고량 급감
 - 2006년 호주의 이상기온과 가뭄으로 곡물가격 급등, 2008년 밀 풍작으로 가격 하락
 - 2011~12년 미국의 고온 건조한 날씨로 가격 급등, 이후 생산량 증가로 하락
 - 현재 곡물가격은 안정된 상황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급등 요인 상존



자료: USDA, AMS and ERS, Rice Outlook

세계 곡물시장 동향

□ 과거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 요인

- 기상이변, 곡물 생산 부족 및 재고 감소 등의 요인으로 시작
 - 1972~74년 식량위기, 2007~8년 밀 재고 감소, 2010~12년 옥수수 재고 감소
- 주요 곡물 수출국의 영향 확대
 -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호주, 브라질 등 곡물 수출 증대
- 에너지와의 연계성 심화
 - 2007~8년 바이오 연료용 곡물 수급 증가에 의해 가격 상승
 - 에너지 가격 상승 ⇒ 생산비 상승 ⇒ 곡물가격 상승
- 곡물 무역 및 금융정책의 역 효과 발생
 - 시장개입(수출세, 수출금지, 수출관세, 국내비축 등)으로 국제 곡물시장 교란
- 곡물 물류시설 부족 및 항만 등에서의 수송 장애
 -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해상 물류시스템 작동 불안
 - 수출국의 정치 불안 등

세계 곡물수급 변동 요인

□ 세계 곡물수급 변동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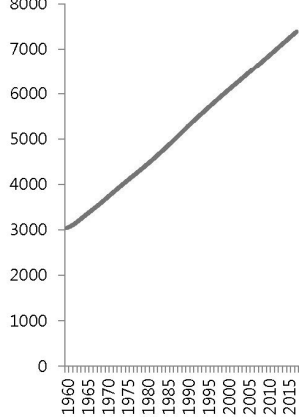
- 곡물수요 변동 요인
 - 세계 인구 변화
 - 소득 증가와 1인당 곡물소비량 변화
 - 곡물수요 변동
- 곡물공급 변동 요인
 - 세계 경지면적 변화
 - 단위 면적당 수확량 변화
 - 곡물공급 변동
- 곡물수요와 공급 변화
 - 수요 > 공급 =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 상승
 - 공급 > 수요 = 재고 증가와 가격 하락, 수급 안정세

세계 곡물수급 변동 요인

□ 수요 측면: 인구 변화

- 1950년 이후 개도국을 중심으로 인구 대폭 증가(약 3배 증가)
 - 연평균 1.64% 증가: 25억 명(1950) ⇒ 73억 명(2015)
 - 1960년대 급격한 인구 증가, 이후 증가율 둔화
 - 2015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1.1% 이하 수준으로 하락

(단위: 백만 명)



국명	1950	2015	국명	1950	2015
중국	544	1,376	미국	158	322
인도	376	1,311	일본	82	127
인도네시아	70	258	독일	70	81
필리핀	19	101	영국	51	65
파키스탄	38	189	러시아	103	143
방글라데시	38	161	멕시코	28	127
이집트	21	92	브라질	54	208
에티오피아	18	99	터키	21	79
나이지리아	38	182	세계	2,525	7,349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세계 곡물수급 변동 요인

□ 수요 측면: 세계 인구 전망

- 세계 인구는 2050년 97억 명, 2100년 112억 명으로 연평균 0.85% 증가 전망
 - 유럽, 북미 지역은 인구 감소
 - 아프리카 인구는 급격히 증가(앙골라, 코트디부아르, 콩고, 케냐, 나이지리아, 니제르, 이집트, 우간다, 잠비아,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등)
 - 2030년 경부터 중국의 인구 감소 전망,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추월 전망

<세계 인구 전망(백만 명)>

주요 지역	2015	2030	2050	2100
세계 전체	7,349	8,501	9,725	11,213
아시아	4,393	4,923	5,267	4,889
아프리카	1,186	1,679	2,478	4,387
유럽	738	734	707	646
북미	358	396	433	500
남미·카리브	634	721	784	721
오세아니아	39	47	57	71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세계 곡물수급 변동 요인

□ 수요 측면: 1인당 곡물 소비량

- 최근 1인당 소비량은 쌀은 감소, 옥수수과 대두는 증가 추세
 - 사료용 및 바이오에너지용 옥수수, 대두 원료 사용 확대로 곡물 수요 증가
- 1960년대 이후 개도국 및 신흥경제국의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에 따른 1인당 곡물 소비량 증가
 -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수요 증가
 - 사료용 곡물수요 증가 및 축산물 소비 확대

<연평균 1인당 곡물 소비량 변동률 추이(%)>

품목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평균
쌀	0.87	0.70	0.68	-0.07	-0.01	-0.05	0.37
밀	1.58	1.12	0.41	-0.80	-0.11	0.56	0.46
옥수수	1.24	2.27	-0.37	1.08	2.18	1.83	1.34
대두	4.94	3.51	0.36	3.42	2.59	3.26	2.86

자료: 미국 농무부(USDA)

세계 곡물수급 변동 요인

□ 공급 측면: 수확면적과 단위면적당 수확량

- 최근 수확면적의 증가율이 1960, 70년대 대비 둔화하는 추세
 - 경작면적의 감소, 빈번한 기상이변, 홍수·폭염·한발 등 생산 불안정 요인 증가
- 2000년대 들어와 단위면적당 수확량(단수) 증가율도 둔화하는 추세
 - 품종개량, 농약·비료·농기계 사용, 관개시설 정비 등 농업기술 발전의 한계

<세계 곡물 수확면적 및 단수 변동률 추이(%)>

구분	쌀		밀		옥수수		대두	
	수확면적	단수	수확면적	단수	수확면적	단수	수확면적	단수
1960년대	0.97	2.38	0.20	2.19	0.93	1.92	1.90	4.25
1970년대	0.83	1.44	1.32	1.88	1.50	2.46	4.90	0.37
1980년대	0.16	2.41	-0.28	3.15	-0.23	1.22	0.81	1.43
1990년대	0.38	0.87	-0.74	0.56	0.57	1.23	3.19	1.74
2000년대	0.34	0.83	0.04	0.95	1.80	1.54	3.03	0.64
2010년대	0.31	0.63	0.30	1.46	1.27	1.50	2.82	0.63
1960-2016	0.51	1.47	0.13	1.71	0.96	1.65	2.84	1.35

자료: 미국 농무부(USDA)

세계 곡물수급 변동 요인

□ 수급 측면: 생산량과 소비량

- 연평균 생산량 증감률은 2000년대 이후 하락하는 추세
 - 지구온난화, 사막화 등 환경변화로 곡물 생산 불안정 요인 증가
- 최근 연평균 소비량 증감률의 경우 대두는 증가 추세이나 쌀과 옥수수는 감소 추세
 - 중국의 대두 수입 확대와 사료용 수요 증가에 기인
- 2010년대 생산량 증가율보다 소비량 증가율 더 높게 나타남

<연평균 생산량 및 소비량 증감률, 1960-2016(%)>

구분		1960년대	198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평균
쌀	생산량	3.32	2.58	1.15	0.93	1.97
	소비량	2.82	2.37	1.16	1.04	1.91
밀	생산량	2.34	2.87	1.15	1.74	1.80
	소비량	3.52	2.09	1.07	1.65	1.99
옥수수	생산량	2.83	0.77	3.32	2.74	2.52
	소비량	3.18	1.33	3.34	2.90	2.86
대두	생산량	6.11	2.23	3.68	3.42	4.03
	소비량	6.82	2.09	3.73	4.31	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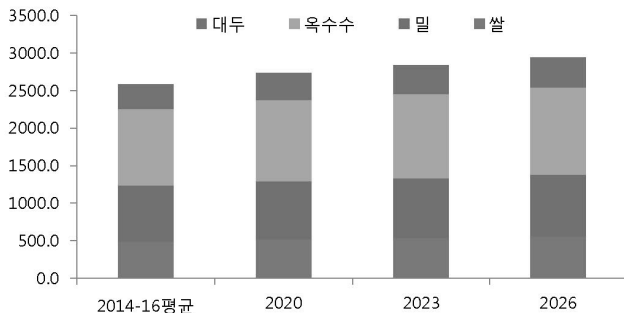
자료: USDA

중장기 곡물 수급 전망

□ 중장기 주요 곡물의 수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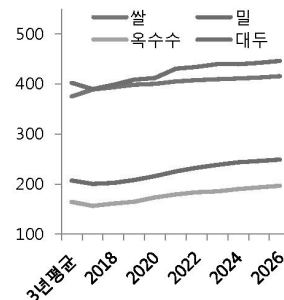
- 중장기 4대 주요 곡물의 수급 전망 결과 수급 균형 유지 전망
 - 생산량 : 25.9억 톤(2014-16평균) ⇒ 27.3억 톤(2020) ⇒ 29.5억 톤(2026)
 - 소비량 : 25.5억 톤(2014-16평균) ⇒ 27.3억 톤(2020) ⇒ 29.4억 톤(2026)
- 중장기 주요 곡물의 톤당 국제가격 전망, 2026
 - 쌀(방콕 FOB 기준) 415달러, 밀(US FOB Gulf) 250달러, 옥수수(US FOB Gulf) 180달러, 대두(CIF 로테르담) 450달러 수준 전망
 - 명목가격은 약간 상승, 실질가격은 약간 하락하는 추세 전망

<곡물수급 전망(백만 톤)>



자료: OECD-FAO(2017),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7-2026

<곡물가격 전망(달러/톤)>



중장기 세계 곡물수급 전망

□ 주요 품목의 수급 전망, 2026

- 4대 주요 품목의 소비 증가율이 생산 증가율을 약간 상회 전망
 - 쌀과 대두: 수급 균형 유지 전망
 - 밀과 옥수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 반면 소비량 증가율이 생산량 증가율보다 빠르게 진행될 전망

<중장기 세계 곡물 수급 전망(백만 톤)>

구 분		2014-16 평균	2020	2026	평균대비 증가
쌀	생산량	494.9	524.2	560.8	1.133
	소비량	494.7	524.3	560.1	1.132
밀	생산량	742.1	771.4	820.8	1.106
	소비량	722.4	767.9	815.3	1.129
옥수수	생산량	1,024.7	1,078.9	1,163.7	1.136
	소비량	1,015.1	1,083.2	1,161.2	1.145
대두	생산량	325.6	358.2	401.3	1.232
	소비량	322.2	358.6	401.1	1.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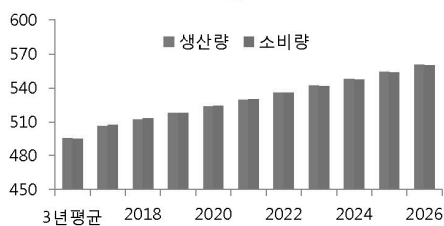
자료: OECD-FAO(2017),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7-2026

중장기 세계 곡물수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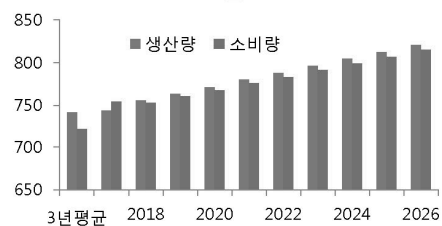
□ 품목별 수급 전망

- 주요 곡물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전망
 - 주요 곡물 생산국의 생산 증가로 공급 증가
 - 과거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였으나 향후 시장가격은 안정세 유지 전망

<쌀>



<밀>



<옥수수>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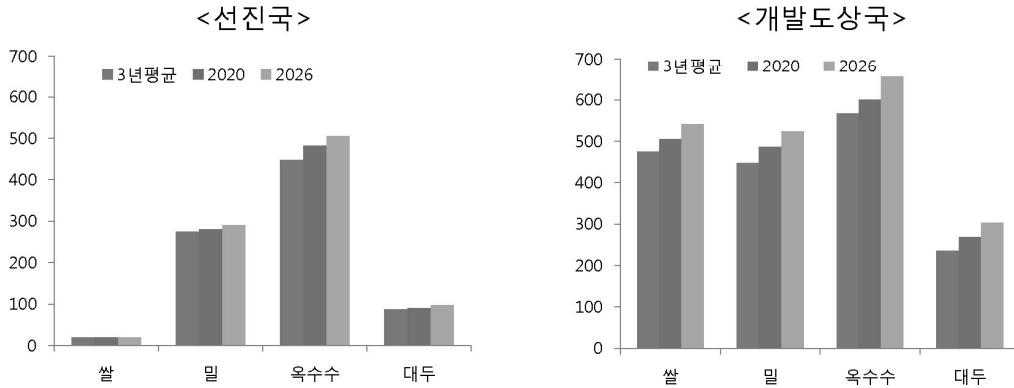


자료: OECD-FAO(2017),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7-2026

중장기 세계 곡물수급 전망

□ 선진국 및 개도국의 곡물 소비 증가율 전망

- 최근 3개년 평균 대비 2026년 품목별 연평균 소비량 증가율 전망
 - 쌀: 개도국 1.28% > 선진국 0.10%
 - 밀: 개도국 1.59% > 선진국 0.56%
 - 옥수수: 개도국 1.45% > 선진국 1.21%
 - 대두: 개도국 2.55% > 선진국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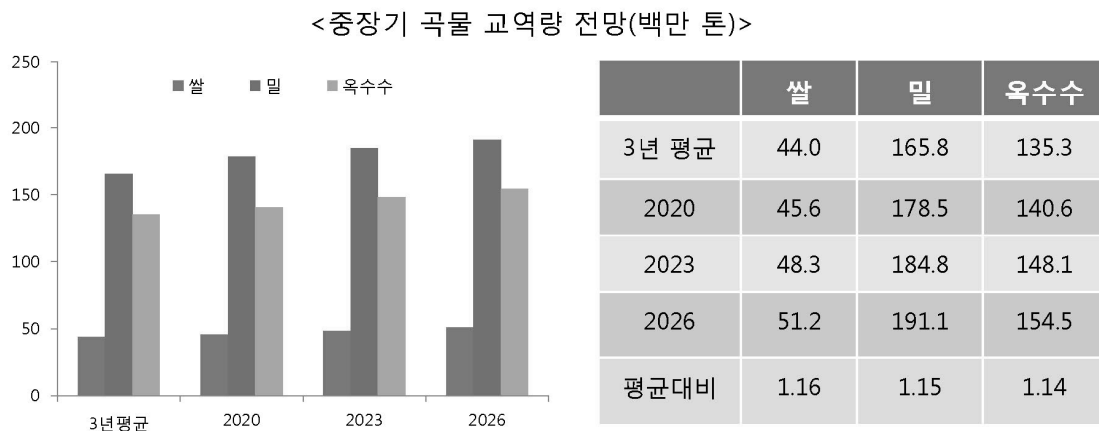


자료: OECD-FAO(2017),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7-2026

중장기 세계 곡물수급 전망

□ 중장기 곡물 교역량 증가 전망

- 교역량은 최근 3개년 대비 2026년 쌀 16%, 밀 15%, 옥수수 14% 증가 전망
 - 교역량이 생산량에서의 비중은 약간 증가 전망: 쌀 9.1%, 밀 23.3%, 옥수수 13.3%
 - 개도국(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의 식량수요 증가로 교역량 증가 전망



자료: OECD-FAO(2017),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7-2026

시사점

□ 세계 곡물 수급 및 가격 전망 결과

- 최근 세계 곡물 수급 및 가격 안정 지속
 - 주요 생산국의 밀, 옥수수 생산 증대로 2016년 곡물 생산 최고치 기록
 - 세계 경제성장 둔화, 대규모 곡물재고, 저유가, 달러 강세 등으로 곡물시장 안정 유지
- 세계 곡물수급 분석 결과 향후에도 세계 곡물시장은 안정세 유지 전망
 - 세계 곡물수급 여건 양호 전망
 - 국제 곡물가격은 명목적으로는 상승하나 실질가격은 안정세 유지 전망

□ 향후 세계 곡물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위험요인

- 예측하지 못한 세계적인 기후변화
 - 빈번한 이상기후, 대규모 자연재해 등
- 세계 인구증가와 식량수요 증가
 - 아프리카, 인도, 아시아 국가들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
 -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식량 수요 증가

시사점

□ 향후 당면과제

- 예기치 못한 새로운 위기 발생에 대비한 식량안보 전략 수립
 - 세계 곡물시장의 일시적·구조적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
 - 새로운 식량위기 발생 가능성 및 빈도 증가에 대비
- 안정적인 국내 곡물수급 체계 확립
 - 국내 식량생산기반의 유지 및 지속적인 확대
 - 국내 농업 및 식품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국내 곡물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곡물조달체계 확립
- 안정적인 곡물 확보 및 조달체계 확립
 - 해외로부터 안정적인 도입
 - 해외식량자원 개발 및 물류시설 투자 확대
 - 세계 곡물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2. 한국의 곡물조달 정책과 현황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저장 오 정 규





Profile

오 정 규

학 력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학사)

경 력

aT 전시지원팀장, CS경영팀장, 경영평가팀장
aT 농식품기업지원센터장, 국영무역처장
현) aT 식량관리처장

한국의 곡물조달 정책과 현황

우리나라의 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 수입은 양곡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1994년 UR협상 타결로 WTO가 출범함에 따라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관세화로 개방되어 관세만 내면 누구든지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에 따라 개방하면 수입농산물의 국내 시장 교란 및 농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하여는 시장접근물량을 설정하여 일정물량만큼 저율(양허)관세로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관리토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WTO TRQ 품목은 당초 67개였으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주스가 1997년도에 단일관세로 개방됨에 따라 현재 63개 품목에 대해 시장접근물량(TRQ)을 설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시장접근물량(TRQ)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 지정기관 2) 수입권 공매 3) 실수요자 배정방식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은 혼용하여 운용하고 있다.

주요 품목별 수입방식을 보면 쌀은 '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유일하게 관세화를 하지 않은 개방유예 품목이었으나 2014년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더 이상의 관세화 유예 시 추가적인 개방으로 인하여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2015년부터 관세화로 개방하였다. 콩과 옥수수의 경우도 WTO 체제 출범 시 시장접근물량을 설정하여 일정 물량은 저율관세로 수입이 보장되도록 하였고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은 고율관세로 누구나 수입을 할 수 있도록 이중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밀은 '90년 수입 추천 대상품목에서 자동승인 품목으로 변경되어 수입 자유화 되었다. 주요 곡물의 수입방식은 대부분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협사료나 사료협회 회원사 일부에서 베이스스 선물거래를 통해 구매하고 있다. 즉 현물시장 가격 중심으로 구매하고 있으나 구매가격이 적정한지, 타 국가(일본, 중국) 대비 구매 경쟁력이 확보되는지는 불확실하다.

국제 곡물시장이 공급측면에서는 가뭄과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곡물 생산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수요측면에서는 바이오 에너지 수요확대, 육류 소비 증가, 국제 투기자본의 곡물시장 유입 등에 따라 곡물 수요가 증대되어 2008년 이후 식량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식량위기론이 부각되면서 국내에서도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낮아 연간 1,500만톤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계 5대 수입국이나 제한된 경지면적과 높은 생산비 구조로 급격한 생산량 증대 어려움이 있어 절대 부족한 곡물을 수입 조달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 곡물시장에서는 4대 메이저(Cargill, Bunge, ADM, LDC)가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수입곡물의 60~70%를 곡물메이저로부터 구입하고 있어 식량자원주의가 심화되어 수출 규제시 곡물 확보의 불안정성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곡물조달방안이 중요한 농정과제로 부각되면서 정부 차원의 곡물 조달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는 2010 년도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국제곡물사업을 위한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2011년도 미국에 AGC(aT Grain Company)라는 현지 곡물회사를 설립하였다. AGC는 민관 합자투자 법인으로 aT가 55%, 삼성물산, 한진, STX가 각각 15% 지분을 투자하였다. 이후 미국 내 산지 곡물기업 인수를 위해 미국 내 8,796개 곡물시설 중 걸프지역에 56개사, 미국 서북부 PNW 지역에 14개 곡물기업을 대상으로 인수 및 투자협의를 진행하여 최종 협상대상 3개사를 선정하였으나 수출엘리베이터 투자와 연계를 위해 산지 곡물기업 인수를 잠정 보류하게 되었다.

수출엘리베이터 확보를 위해 AGC는 주요 곡물기업들과 협력가능성을 타진한 결과 LDC(Louis Dreyfus Company)만 협력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LDC 수출 엘리베이트 지분인수를 위한 현지 실사를 하고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과도한 프리미엄 요구, 의무 구매물량 설정 등에 대한 이견 등으로 협상이 결렬되었다. LDC 수출엘리베이터 투자 검토 중단 이후 AGC 참여사와 사업대안을 모색한 결과 AGC 참여사인 STX가 보유한 미국 수출엘리베이터의 지분을 활용한 국내곡물 전문기업을 설립하기로 하고 STX가 보유한 EGT(Export Grain Terminal) 지분 인수를 위해 EGT 최대 주주사인 병기 및 이토추와 협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병기 등에서 기존 계약 외에 추가 요구조건을 제시하여 한국에서도 조건부 수용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병기 등은 STX 팬오션 지분 20%에 대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야심차게 추진해 온 국가곡물조달 구축사업은 일단락되었다.

국가 곡물조달사업 추진이 성공하지 못한 사유는 첫째, 곡물사업은 대규모 자본투자가 수반되고 높은 위험이 있어 곡물 메이저에서 독점적인 시장 진입에 대한 프리미엄을 요구 하는 등 초기 진입장벽이 존재하였다. 둘째, aT Grain Company의 경우 곡물사업 초기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한 고정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자금력이 부족하여 메이저와의

협상력이 부족하였다. 셋째 곡물조달구축 사업은 사업성과 도출에 장기간 소요되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나 단기적 성과 창출에 치중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비록 곡물조달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현지 곡물기업 인수를 위해 조사 분석한 자료를 축적하고 미국 곡물시장의 생산, 유통, 수출 물류 및 연관 산업에 대한 밸류체인을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수출 엘리베이터를 보유한 곡물메이저와 협상과정에서 기업 인수합병 및 협상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으며, 미국곡물협회(USGC), 미국 사료곡물조합(NGFA) 및 딜롱, 가빌론 등 곡물기업들과 곡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 곡물업계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점 등은 곡물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로 볼 수 있다.

해외 곡물사업 추진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 중국의 경우 국영기업을 통해 식량안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대규모 자금으로 M&A를 추진하여 국제 곡물기업을 인수 합병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도 농업용수 부족으로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 정부 주도로 해외에 농지 및 농업시설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 “캐나다 밀 독점 수출기구”(Canadian Wheat Board) 지분 51%를 캐나다달러 2억5천만불(미화 2억불)에 인수하였다. 일본의 경우도 젠노, 이토추, 마루베니 등 종합상사와 같은 민간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 해외에 장기적, 단계적으로 투자를 실시하여 현재 안정적으로 곡물을 조달하고 있다.

비록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이 실패하였지만 앞으로 식량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으므로 지난 사례를 교훈삼아 우리나라에 적합한 추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제 곡물 시장 진입은 식량안보를 위해 국가 장기전략 차원에서 추진 필요성이 있으므로 민간 주도로 철저하게 수익성 중심으로 추진하되, 사업초기 환경조성 및 자금지원 등 공적 부문의 지원도 필요하며, 일본의 경우와 같이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하여야 한다.

곡물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실수요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고정적인 판로처 확보, 곡물 트레이딩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인력 육성, 곡물가격 급등락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 구조, 곡물 유통망 투자 및 곡물사업 운전자금 등 대규모 자금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신규 진입자가 일시에 곡물사업 성공요인을 확보하여 100년 이상의 노하우를 보유한 곡물메이저와의 경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규 진입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궁극적인 목표인

곡물 유통망 확보를 통한 진입보다는 선물시장을 활용한 구매가격 경쟁력 확보, 전문인력 육성 등 트레이딩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사업역량을 우선 강화하여야 한다. 트레이딩 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곡물메이저가 선점하고 있는 주곡(밀, 콩, 옥수수)이외 부원료 등 초기 트레이딩 가능한 품목을 우선 추진하되, 현지 곡물메이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사업안정화까지 곡물메이저의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트레이딩 사업역량 확보된 이후에 국제 곡물시장의 밸류체인인 곡물 유통망 확보를 통해 트레이딩 사업을 주곡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한국계 곡물전문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우선 곡물시장에 참여하여 생존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규모 투자에 따른 리스크 통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곡물 메이저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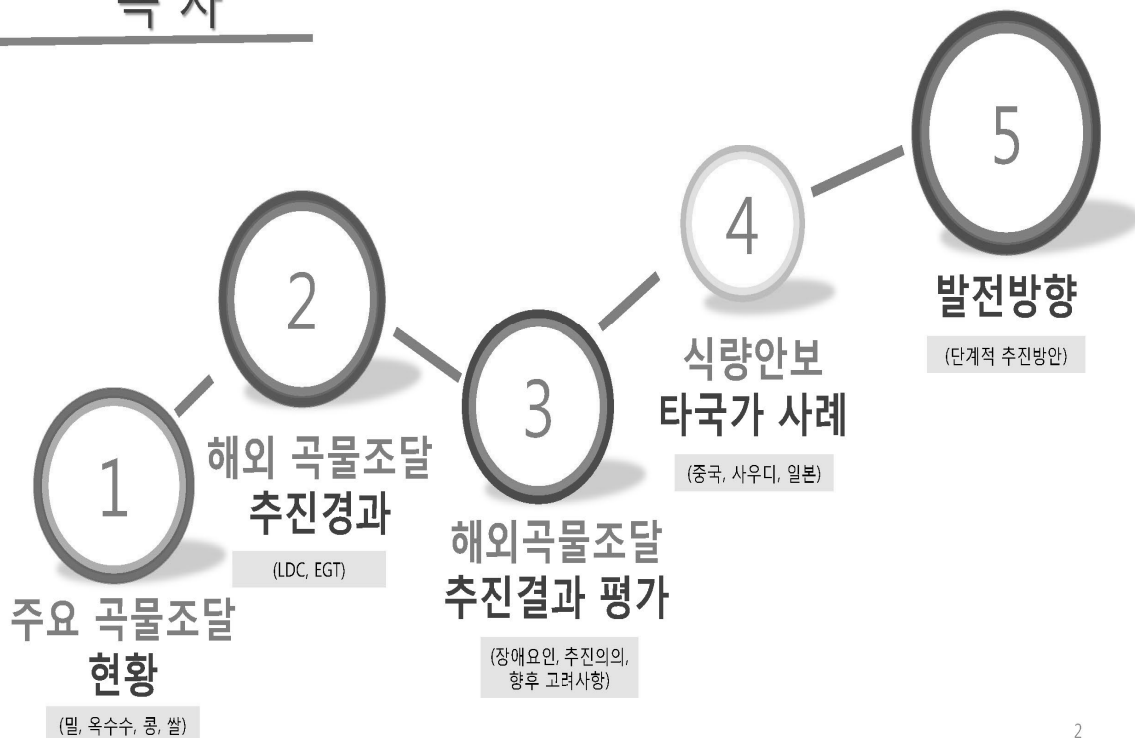


한국의 곡물조달 정책과 현황

2017. 11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처장 오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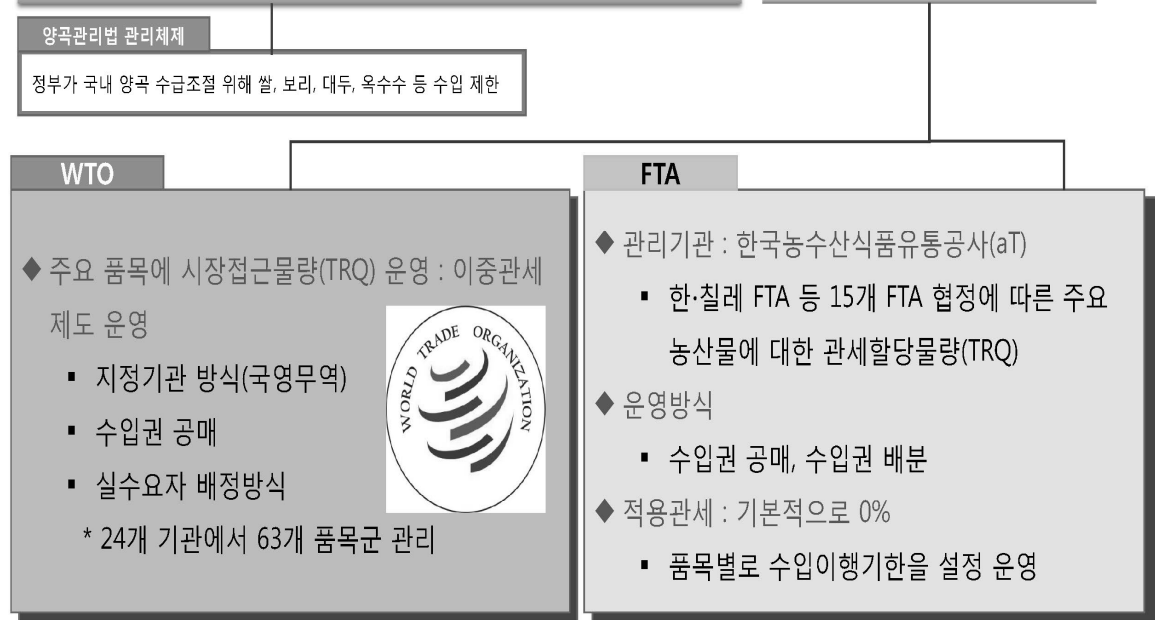
목 차



I. 주요 곡물 조달현황

1. 수입관리 제도

1950년 1995년 현재



I. 주요 곡물 조달현황

2. 쌀

- ◆ 2015년 이전(개방 유예)
 - MMA 물량 : ('05) 225천톤 → 409 / 밥쌀의무비중 30% / 국별쿼터 운영(미국, 중국, 호주, 태국)
- ◆ 2015년 : TRQ로 개방(총량쿼터 운영, 밥쌀 의무비율 폐지)

관세제도	운영방식	수입업체	수입방식	수입물량('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관세구조 TRQ 운영 • 저율 : 5% • 고율 : 5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기관 배정 (국영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경쟁입찰 (CIP/CIF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8,700톤

- ✓ 관세화 이후 수입실적
 - 고율관세 : ('15) 0.6톤 → ('16) 1.5톤 / 면세 : ('15) 8.509톤→('16) 5.395톤

I. 주요 곡물 조달현황

3. 콩

◆ WTO TRQ

관세제도	운영방식	수입업체	수입방식	수입물량(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중관세구조 TRQ 운영 저율 : 5% 고율 : 4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기관 배정 실수요자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용 : aT 채유·사료용 : 한국 대두가공협회, 한국사료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경쟁입찰 (Basis 선물거래) 공동 또는 개별 공개경쟁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6만톤 102만톤

◆ FTA TRQ

- 한·미 / 한·호주 / 한·캐나다 FTA
 - 수입기관 : 실수요단체(한국연식품조합 등 8개 단체)
- 한·중 FTA : 수입권 구매(aT) / 1만톤

I. 주요 곡물 조달현황

4. 옥수수

관세제도	운영방식	관세	추천기관	수입방법	수입물량(15)
이중관세제도 TRQ 운영	실수요자 배정	가공용 저율 : 1.8~3% 고율 : 163~630%	전분당협회 aT 콘협회 등	공동 또는 개별구매 (공개입찰경쟁)	220만톤
		사료용 저율 : 1.8% 고율 : 328%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공동 또는 개별구매 (공개경쟁입찰) <small>* 지명경쟁, 수의계약 병행</small>	817만톤

✓ 농협사료와 사료협회 일부 회원사의 경우 선물거래와 연계 베이스스 거래 활용

I. 주요 곡물 조달현황

5. 밀

관세제도	관세	수입업체	수입방법	수입물량 (15)	가격조건
단일관세 (시장완전개방)	식용 : 1.8% (제분용)	한국제분공업협회	공동구매 또는 개별구매 (공개경쟁입찰)	236만톤	FOB플랫(Flat거래)
*밀가루 3%	사료용 : 0%	농협사료, 사료 실수요 단체 및 개별업체	"	161만톤	농협사료 : CNF 플랫 또는 Basis 사료협회 : 플랫 방식

✓ 한중FTA 관세 : 제분용 밀 0.7%, 밀가루 3% / 한·캐나다 밀가루 1.6%

I. 주요 곡물 조달현황

6. 현행 구매 시스템 진단 및 시사점

현행 구매시스템 진단

- ◆ 현물시장에서 구매원가 관리측면에서 최저가 경쟁입찰로 구매
 - 타 국가(일본·중국) 비교시 구매경쟁력 여부 불확보
- ◆ 공동구매 방식을 통한 구매가격 일치
 - 국내 판매가격 안정화를 위한 원가관리 노력 미흡
- ◆ 베이스 선물거래를 통한 원가 관리 노력
 - 상호경쟁의 부재로 자체적인 구매역량 향상 미흡

시사점

- ◆ 장기적인 Basis 계약 확대 및 Basis 방식 공동구매 후 개별 pricing 방식 도입
- ◆ 공급사와 교섭을 통한 private 구매 등 구매 방식 다양화 필요

II. 해외 곡물조달 추진경과

1. 추진배경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나
제한된 경지면적과 높은 생산비 구조로 자급 한계

국제 곡물시장은 곡물 메이저 독과점적 시장으로
한국은 대부분 수입을 국제 곡물메이저에 의존

지구온난화로 곡물생산 변동성 증가
중국 등 신흥국 경제성장, 바이오에너지 수요확대,
투기자본 유입 등 곡물시장 불안정성 증대

국가 식량안보를
위한 안정적 곡물
조달시스템
구축 필요



II. 해외 곡물조달 추진경과

2. 사업준비

◆ 국가곡물 조달시스템 구축사업 준비('10~'11)

- aT에 곡물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팀 구성('10.2)
 - 대내외 진출여건 검토 등 국제곡물사업 기초조사 수행(2~4월)
 - 전문기관 용역, 현지조사 등 진입 타당성 조사(5~9월)
 - * 용역업체 : 삼일회계법인 / 내용 : 국가별 진출전략 등
 - * 현지조사 : 일본('10.2), 우크라이나(5월), 브라질(6,9월), 미국(6~7,9월)
- 국가곡물 조달시스템 추진기관으로 국영무역으로 곡물도입 경험이 있는 aT 선정
- 미국 시카고에 현지법인 설립 준비단 파견(9월)
- 미국 현지 곡물회사 aT Grain Company 설립('11.4)
 - aT 55%, 삼성물산 15%(마케팅), 한진 15%(물류), STX 15%(해상운송)



II. 해외 곡물조달 추진경과

3. 산지 엘리베이터 투자 추진

◆ 산지 곡물 엘리베이터 투자 추진경과('11~'13)

- 산지 곡물기업 인수 위한 현지 출장조사('11.1) 및 현지 투자전문 자문사 컨설팅 계약('11.9)
- 미국 내 총 8,796개 곡물시설 중 인수 유망기업 70개 선정('11.11)
- 1차 걸프 지역 55개 목표기업에 대한 인수의사 타진 및 투자협약('11.11~12.8)
- 2차 PNW 지역 14개 목표기업 인수의사 타진 및 협의
 - ✓ 현지 곡물기업은 100% 매각 보다는 AGC와 협력을 통해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의 합작 투자(Joint Venture)를 희망

- 의사타진 및 협의 결과, 3개사에서 최종 협력 의사 있음을 확인
- 수출 엘리베이터와의 연계를 위해 투자 진행 보류

11

II. 해외 곡물조달 추진경과

4. LDC 수출엘리베이터 투자 추진

◆ LDC 추진경과('11~'12)

- 미국 주요 곡물 기업 접촉 및 의사 타진한 결과, LDC에서 유일하게 협력 가능성 확인('11.6)
 - LDC는 Gulf 지역 신규 진출 계획이 있어 자금조달 및 판매 확대 필요
- LDC의 제안내용 파악 현지 출장('11.8)
 - Gulf 및 PNW 지역 수출 엘리베이터 투자 관련 협의
 - * 주요내용 : 합작사업 방식, 수익구조, 취급물량, 합작사업체 구성 전 시범사업, Take or Pay(의무구매물량) 조건 등
- Conference Call(전화회의), E-mail 등 통해 투자제안 분석 및 LOI 제출('11.9)
 - 인수가격 및 관련 근거자료, 자금조달 방법, 실사 진행 방법 등 기술
- LDC와 Non-Binding(법적구속력 없음) 조건의 프로젝트 투자조건 협의('11.10~'12.2)
 - * 협의내용 : 투자금액 조정, 지분, 계약기간, Take or Pay(의무구매) 물량, 이사회 구성 등 협의
 - * LDC 본사방문하여 곡물사업 역량 확인('12.1) 및 현지 출장으로 Term Sheet 협의('12.2)

LOI(Letter of Interest) :
투자의향서

Term Sheet : 본 계약 체결 전 주요사안에 대한 조건을 기술한 문서

12

II. 해외 곡물조달 추진경과

4. LDC 수출엘리베이터 투자 추진

◆ LDC 추진결과

- 공동 실사단을 구성하여 실사 추진('12.5~6)
 - LDC와 실사 추진을 위해 NDA(비밀유지계약) 및 MOU(양해각서)체결('12.4)
 - 수출 EL 실사를 위해 전문 자문사와 자문계약 체결('12.4)
 - * 회계 및 재무, M&A : 삼일회계법인 / 미국 곡물업계 전문 M&A, 영업 및 기술 : HighQuest
 - 현지실사 및 자문사 협의를 바탕으로 LDC와 협상 진행('12.5.13~6.13)
 - * 재무 분야 세부검토를 위해 aT는 전문 회계법인을 통하여 재검증

NDA(Non Disclosure Agreement)
: 비밀유지계약

✓ 장기간에 걸친 협상 및 실사결과, 자문사의 객관적인 의견을 토대로 한국측 투자안* 제시

* 수정제안 내용 : 과도한 프리미엄 조정, Take or Pay(의무구매물량)에 대해서는 초기 유예기간 부여 등

➢ LDC 기본입장 고수 및 Deal 중단 표명('12.7)

II. 해외 곡물조달 추진경과

4. LDC 수출엘리베이터 투자 추진

◆ LDC 현장실사 사진(1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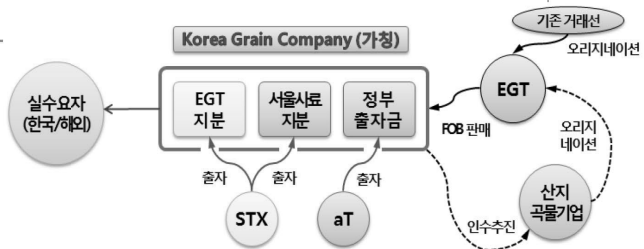
II. 해외 곡물조달 추진경과

5. EGT 수출엘리베이터 투자 추진

◆ EGT 투자 추진경과('12.6~'13.6)

- LDC 수출 엘리베이터 투자 무산 이후 대안 모색('12.5월~11월)
 - (주)STX와 EGT 지분을 활용한 국내곡물전문기업 설립추진에 대한 사업협력 방안 검토
- 수출 EL을 보유한 민간사와 협력하여 곡물 전문기업 신설
 - STX는 2012년도 건설되어 가장 경쟁력을 갖춘 수출 EL(EGT) 및 서울사료 지분을 현물출자
 - * EGT(Export Grain Terminal) 20%(6천만불), 서울사료 20.26%(200억원)
 - aT는 곡물사업 정부출자금을 현금출자

✓ 기대효과
: 한국계 곡물 메이저로 성장발판 마련
및 곡물조달 시스템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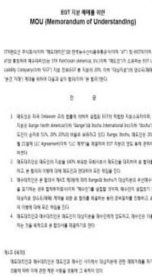
II. 해외 곡물조달 추진경과

5. EGT 수출엘리베이터 투자 추진

◆ EGT 투자 추진경과('12.6~'13.6)

- 곡물전문기업 신규설립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 관계구축 MOU 체결 및 공동 T/F 운영(12월)
 - STX 그룹이 보유한 EGT 지분, 서울사료 지분, 곡물사업부 조직을 현물출자하여 기업설립
 - 합작사업 추진을 위한 aT-STX 간 공동 T/F 운영(12월~)
- EGT 지분 매매를 위한 MOU 체결 및 EGT 지분 인수의향을 EGT 주주사에 통지('13.4월)
 - 체결자 : aT-(주)STX-STX팬오션(주)
- EGT 주주사 면담을 위한 현지 출장(5월)
 - Bunge, Itochu의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공사 및 (주)STX의 의견 전달
 - 신규 곡물전문회사의 합작투자계약 초안 제시

EGT 지분매매 MOU



II. 해외 곡물조달 추진경과

5. EGT 수출엘리베이터 투자 추진

◆ EGT 투자 추진결과

- EGT 지분취득을 위해 STX와 공동으로 협상 추진했으나 EGT 주주사 우선매수권 행사(5~7월)
 - Bunge, Itochu측에서 EGT 지분인수를 위한 기존 계약 이외의 6개 추가 요구 조건 제시(5.22)
 - 추가 요구조건에 대해 공사안 제시 및 협상(5.31~6.12)
 - 공사는 EGT 주주사의 6개 요구조건 중 이행보증 등에 대한 조건부 수용 의사 전달
 - Bunge, Itochu는 우선매수권 행사키로 결정하여 aT, STX에 통보(6.14) 및 매수(7.11)

- 한국은 기존보다 강화된 과도한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 Bunge 및 Itochu는 우선매수권 행사하여 기존 주주들이 EGT 지분인수

17

II. 해외 곡물조달 추진경과

5. EGT 수출엘리베이터 투자 추진

◆ STX 협력 MOU 체결(`12.12) 및 EGT 현장실사 사진(`13.5)



18

Ⅲ. 해외 곡물조달 추진결과 평가

1. 장애요인 및 추진의의

장애요인

- ✓ 대규모 자본투자 수반, 높은 위험, 메이저 독점적 시장 진입에 대한 과도한 프리미엄 요구 등 진입장벽
 - LDC 115백만불 vs 한국 58백만불
- ✓ 국내 안정적 판로 위한 고정 수요처 미확보 및 자금력 부족에 따른 메이저와의 협상력 부족
 - 메이저는 단순한 재무투자보다 사업확장 기대
 - 곡물 지분확보 자금 이외 운전자금 부족
 - 곡물사업 리스크 우려로 민간기업 참여 미온적
- ✓ 곡물사업 특성상 장기적 투자 필요하나 여건 불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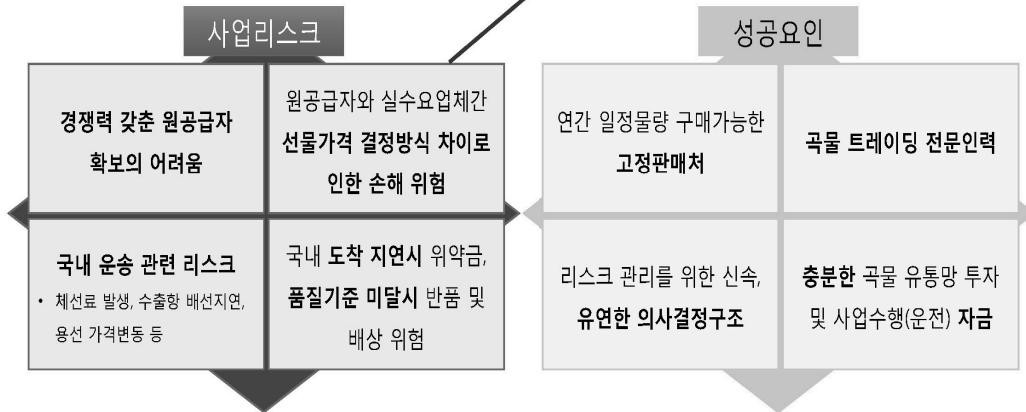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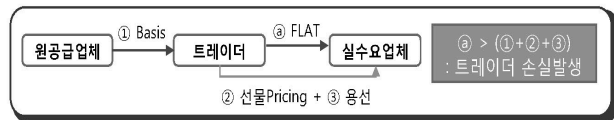
성과 및 의의

- ✓ 조사분석 및 협상 통해 M&A 및 협상 노하우 축적
 - 폐쇄적 곡물시장에서 곡물 메이저(LDC, 번기 등)와 70개 산지 곡물기업과 투자협상 진행
 - 현지 곡물시장 분석으로 곡물시장 진입역량 강화
- ✓ 국제 곡물업계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딜롱, 가빌론 등과 공급계약 체결
 - 미국곡물협회(USGC), 미국사료곡물조합(NGFA), 북미곡물수출협회(NAEGA), 미국대두협회(ASA) 등 협회 및 생산자 단체와 유대 강화

➢ 축적된 조사분석 자료 및 노하우는 향후 곡물조달시스템 구축시 필요한 자산으로 활용

Ⅲ. 해외 곡물조달 추진결과 평가

2. 향후 고려사항



➢ 향후 국제곡물사업 진출시 충분한 고려 필요 및 준비 필요

IV. 식량안보 타국가 사례

국가주도형 vs. 민간주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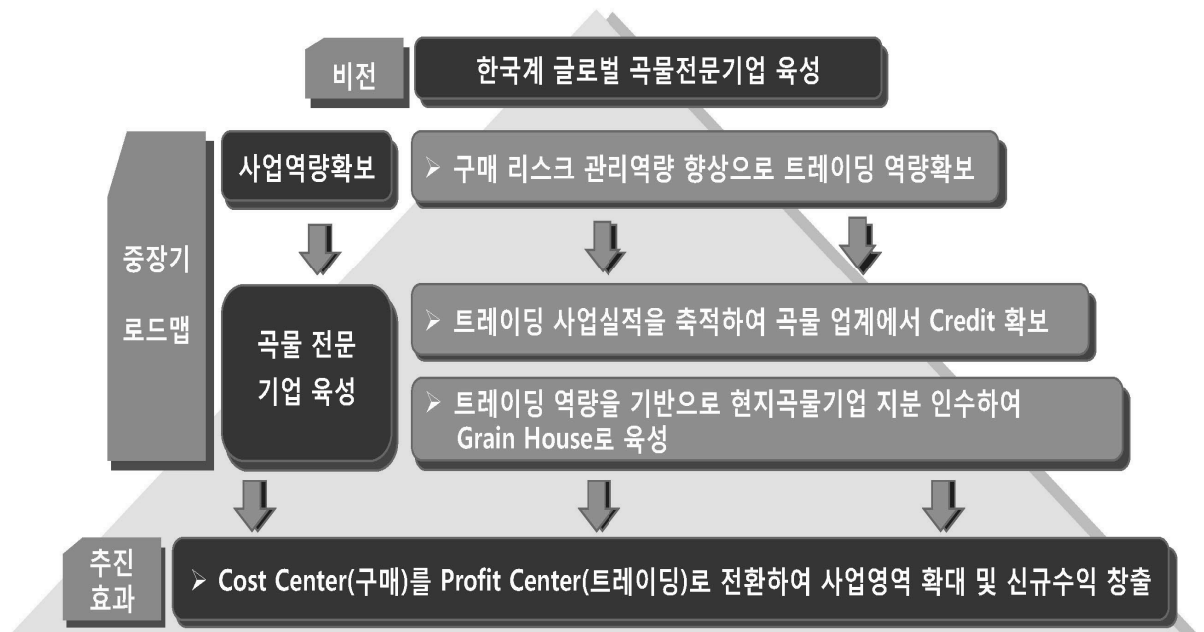
구분	국가주도형	민간주도형
국가	•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 일본
목적	• 절대적 공급부족 해소(국내 수요>국내 생산)	• 안전, 안정적 원료 확보('두부 파동' 이후 해외진출)
주체	• 공적 기업(중국 COFCO, 사우디아라비아 SALIC 등)	• 생산자단체(젠노) • 종합상사(마루베니, 이토추 등)
자금조달	• 자금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 민간기업에서 자금조달 • 국가에서는 기금 조성(대출상환)
투자사례	• 중국 COFCO : 국제 곡물회사 니데라 인수 및 국제적 곡물 메이저 기업 육성 추진 • 사우디아라비아 SALIC : 곡물 메이저 번기와 공동으로 캐나다 밀 독점공급협회(CWB)에 51% 투자	• 젠노 미국 진출 • 미국 법인 ZGC 설립(79) • 자체 수출엘리베이터 건설(82)

➢ 국가가 곡물사업 추진하려면 ① 대규모 자금력 갖추거나 ② 장기적인 정책 추진의지 필요

21

V. 발전방향

단계적 사업추진 체계



22

3. 국제 곡물시장의 구조와 특징

애그스카우터 대표 김민수





Profile

김민수

학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독일어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휴학

경력

한국사료협회

현) 애그스카우터 대표(국제 곡물 분석 및 정보제공업)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 동향 편집위원

현) 축산경제신문사 주간 '세계 곡물시장 브리핑' 집필

세계 곡물시장 현황과 대응방안

- 국제 곡물시장의 구조와 특징 -

우리나라의 경우 쌀을 제외한 옥수수, 소맥, 대두 등 주요 곡물들에 대한 자립도는 거의 없으며 향후에도 농지 개발과 재배 면적을 넓혀 식품 가공 산업이나 축산 산업에서 소요 되는 곡물의 일부를 내수 시장에서 충족시켜 나가기란 요원한 일이다.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쌀에 대한 소비는 급격히 줄어드는 대신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늘어 사료용 곡물의 소비가 크게 증가했다. 식품 가공 산업이나 식용유 산업에서도 원자재로서의 곡물 및 유지작물에 대한 수요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 수요에 따른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해외 공급자와의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국제 시장에서의 곡물 가격은 일정하지 않아 수시로 변하게 되어 가격 변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선물 시장에서의 곡물 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어 시장 참가자들 가운데 투기 목적으로 뛰어드는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에 의한 가격 왜곡 현상이 심화된다. 세계 곡물 수급이 안정적일 때에는 변동성이 크지 않으나 수급에 관한 특별한 이슈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소게임을 펼치듯이 곡물 가격은 요동을 친다. 최근의 곡물 가격은 세계 곡물 공급 과잉 현상으로 인해 크게 하락한 상황이나, 과거에는 ‘애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곡물 가격이 올라 우리나라와 같이 전적으로 곡물 수입에 의존하던 국가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아야만 했다.

우리나라와 시장 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이미 농업 선진국으로의 투자를 확대하여 자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체적인 공급 망을 확보해 놓아 비상시에 안정적으로 곡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토대를 오래전에 갖추어 놓았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곡물 순 수출국 이었던 중국이 순 수입국으로 전환되면서 식량 안보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다루어 해외로의 투자를 가속화하여 지금은 국제 곡물 시장에서 견줄 수 있는 국영 무역 기업을 구축해 놓았다. 우리의 경우 곡물 가격이 치솟을 때마다 식량 안보를 걱정하는 목소리만 높아졌을 뿐 실제로 이룩해 놓은 성과는 없다.

국가 차원의 곡물 조달 시스템은 타당성 조사에만 그쳤을 뿐이며 운 좋게 미국 북서부 지역 수출 엘리베이터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뛰어들었던 팬 오션마저 붕괴되면서 유일하게 확보해 놓았던 수출 엘리베이터는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상황에 국내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선뜻 국제 곡물 시장으로 진출하려 하지 않는다. 국가도 식량 안보를 위한 뚜렷한 로드 맵을 갖추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슈가 있을 때에만 탁상공론식으로 논의한 것도 벌써 10년이 흘렀다.

반면 국내 기업 하림이 파산 직전의 팬 오션을 인수하면서 국제 곡물 사업에 뛰어들어 선박 운용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국내로의 곡물 도입을 확대해 오고 있어 고무적이다. CJ 역시 오래전부터 해외 투자를 강화해 오고 있으며 일본 젠노와 비즈니스 협업을 통해 국내에 곡물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 또한 대우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그룹에 합류하면서 포스코 대우라는 이름으로 해외 곡물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아웃소싱을 확대하여 국제 곡물 시장에 명함을 던지고 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 곡물 엘리베이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여 동유럽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 곡물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세계 곡물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국제 곡물 메이저로 불리는 ABCD 즉 ADM, Bunge, Cargill, LDC의 아성을 넘볼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유럽을 중심으로 한 Glencore나 아시아의 Wilmar, Olam 등과 같은 종건 곡물 트레이딩 기업들이 ABCD에 대항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다. 국제 곡물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중국의 중량 그룹(COFCO)은 유럽의 Nidera 그룹과 아시아의 Noble 그룹을 100% 인수해 이들 기업이 구축해 놓은 세계적인 공급망을 활용하여 국제 곡물 사업의 새로운 선두주자로 나서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국제 곡물 시장의 흐름을 견지하면서 우리나라가 식량안보를 위해 구축해 나가기 위한 선결 과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중의 하나가 국제 곡물 시장을 분석하고 시장의 방향성을 살펴나가는 전문 인력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국제 곡물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 있는 곡물 공급상의 에이전트를 통한 수동적인 구매 시스템과 국제 곡물 트레이딩에 적합한 전문 교육 시스템의 부재가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국제 곡물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물 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선물의 개념 및 특징을 통해 현물 가격을 추산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선물 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선물에 대한 개념과 선도거래 및 현물거래와의 차이점, 선물거래의 역사와 발전 과정, 선물거래의 특징과 기능 등을 살펴 농산물 선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 등을 정립해 놓아야 한다. 또한 전 세계 선물 시장을 대표하는 시카고 곡물 선물거래소(CME)의 운영방법 및 거래 시스템을 이해하고 주요 농산물인 옥수수, 소맥, 대두의 거래방법과 조건 및 실물인수도 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현물 가격을 파악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의 차이에서 생기는 베이스스 개념을 정리하고 시카고 곡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곡물 선물 가격을 현물 가격으로 추산하는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국제 곡물 교역 시장에서 형성되는 곡물 가격의 메카니즘을 파악해야 한다.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 상품 중 가격 변동의 위험이 가장 큰 상품 군에 속하는 곡물은 대내외 변동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이들 변동 요인을 분석하여 가격 방향성을 예측하고 현물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 위험을 선물 거래로 회피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강구해 나가야 한다.

선물 시장의 이해를 전제로 국제 무역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국제 곡물 거래시 수반되는 여러 계약 조건들을 숙지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국제 규범들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특히 국제 곡물 거래에서 표준화된 계약 조건을 런던에 있는 국제곡물거래업협회(GAFTA)가 마련해 놓고 있으며 수출업체들은 이 조건을 준용해 오고 있다. 생산 규모에 비례해 교역 규모 역시 큰 품목들인 옥수수, 소맥, 대두는 식품 가공용이나 사료용으로 전 세계에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국제 경쟁을 통한 입찰 방식의 거래가 일반적이다. 주요 농산물 수입국인 우리의 경우 국제 시장에서 어떠한 형태로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지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조건(품질, 수량, 가격, 결제, 선적, 보험, 중재 등) 이외에 국제 곡물 교역에서 요구되는 특별한 사항 등을 이해하여 국제 시장에서 곡물 구매 시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제 거래에서 주도권을 가져 실리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국제 시장에서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농산물의 교역은 상당히 까다롭고 절차 또한 복잡할 뿐만 아니라 대형 선박을 통한 대량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 간에 사고 발생 시 위험 부담이 크고 분쟁의 소지도 있어 국제 곡물 계약 시 당사자 간에는 계약서 이외에 별도의 약관을 마련해 놓아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곡물 수입 단체(기업)에서 자체적인 구매 규정을 두어 구매 계약 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구매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수출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어 있는 GAFTA의 규정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다.

제반 지식을 축적한 이후 국제 곡물의 교역을 이해해 나가야 한다. 국제 시장에서

곡물의 유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산에서부터 중간 유통과 수출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품목별 국가별 생산 및 소비와 수출입의 비중을 고려해 곡물의 교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주요 곡물의 생산과 수출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중심으로 Supply Chain이 어떻게 형성되며 물류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곡물 가격에서 내륙 운송비용과 해상 운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요 국가의 곡물 운송 경로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국제 곡물의 유통 경로는 곡물을 대량 생산하여 수출하는 국가는 제한적임에 반해 일부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를 제외한 많은 국가들은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등이 주요 곡물 수입국임에 따라 국제 시장에서 곡물별 유통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국제 곡물 수급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끝으로 국제 곡물 교역의 중심에 있는 다국적 애그리비즈니스 기업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대규모로 곡물을 유통하여 수출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극히 적은 이유는 곡물 유통 자체가 장치 산업으로써 시설 확보와 설비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며 국제 곡물 시장에서 메이저라고 불리는 ADM, Bunge, Cargill, Loui Dreyfus가 오랫동안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은 전 세계에 곡물 유통망을 확보해 언제 어디에서든지 공급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어 소수에 의한 공급 독점 체계는 곡물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됨에 따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식량 안보의 문제가 된다. 최근에는 유럽 기업들이 동유럽권을 중심으로 곡물 시장을 확보해 나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 기업들 또한 M&A 시장에 뛰어들어 곡물 시장 쟁탈전을 벌리고 있는데 중국의 COFCO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최근 유럽의 Glencore가 Bunge 인수를 제안했다는 뉴스가 전해져 국제 곡물 시장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제 곡물 시장 전반에 대한 상황과 우리가 처한 현실 및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할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을 언급했다. 계속해서 국제 곡물시장의 구조와 상황의 변화를 조사 연구해야 할 것이며 정보 축적을 통해 향후 우리의 식량 안보 정책 수립과 국내 기업의 국제 곡물사업 진출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 곡물시장 현황과 대응방안

- 국제 곡물시장의 구조와 특징 -

2017. 11. 17

김민수

Agscouter 대표

Contents

1. 국제 곡물 가격의 형성
 - 선물의 개념 및 특징
 - 시카고상업거래소
 - 선물가격과 현물가격
 - 가격 변동 요인과 위험 회피
2. 국제 곡물 계약 형태와 제반규정
 - 계약 방식
 - 계약 조건
 - 국제 규범
3. 국제 곡물 교역 형태
 - 곡물 유통 구조
 - 곡물메이저의 독점
 - 국제 곡물 시장의 변화

□ 선물의 개념 및 특징



- ❖ 선물거래는 현물거래와 달리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기한 후 상품과 대금을 교환
- ❖ 선도거래는 매매 예약 거래이나 사적 계약으로 자유롭게 거래
- ❖ 선물거래는 공인된 거래소를 통해 정해 놓은 조건에 따라 거래

□ 선물의 특징

- 조직화된 거래소에서 자격 있는 회원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
- 표준화된 계약조건
- 청산기관
- 일일정산제도 - 증거금
- 레버리지 효과
- 높은 유동성

□ 선물의 경제적 기능

- 가격 변동 위험의 전가
- 가격 예시 기능
- 금융시장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
- 금융상품 거래의 활성화 기능

□ 시카고상업거래소의 연혁



- Chicago Board of Trade
- 1848년 설립
 - 1865년 표준화된 상품 선물 거래
 - 1877년 옥수수 선물 거래
 - 1925년 청산소 설치
 - 1936년 대두 선물 거래
 - 1950년 대두유 선물 거래
 - 1951년 대두박 선물 거래
 - 1994년 전자거래
 - 2005년 뉴욕 증권 거래소 상장



- Chicago Mercantile Exchange
- 1919년 설립
(시카고 버터 및 계란 거래소)
 - 1961년 냉동 및 저장육 선물 거래
 - 1972년 외국환 선물 거래
 - 1980년대 주식 지수 선물 및 상품 옵션 거래
 - 1992년 전자거래(CME Globex)
 - 2002년 뉴욕 증권 거래소 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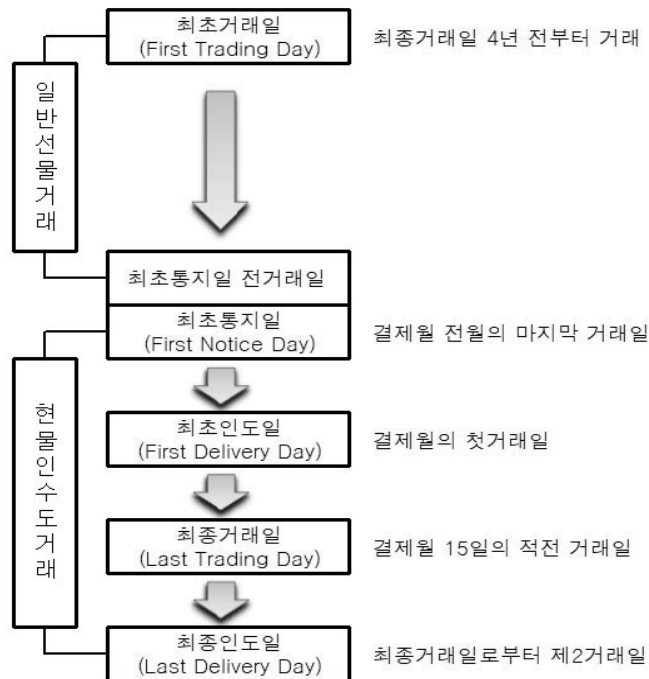
2007년 7월 9일 통합
2015년 7월 2일부터 공개 호가 중단(전자거래로 통합)

□ 시카고상업거래소의 거래 조건

계약단위	가격표시	거래시간	상품기호
5,000부셸	부셸당 센트	(일~금) 7:00pm~7:45am (월~금) 8:30am~1:20pm	옥수수: ZC, C 대두: ZS, S 소맥: ZW, W
계약월물	최소 가격 변동 폭	가격 변동 제한 폭	등급 및 품질
옥수수, 소맥 3(H), 5(K), 7(N), 9(U), 12(Z) 대두 1(F), 3(H), 5(K), 7(N), 8(Q), 9(U), 11(Z)	부셸당 0.25센트 ↓ 계약 1단위당 12.50달러	옥수수 부셸당 25센트 소맥 부셸당 30센트 대두 부셸당 70센트	2등급의 황색 옥수수 2등급의 황색 대두 2등급의 SRWW

자료: CME 홈페이지(www.cmegroup.com)

□ 시카고상업거래소의 청산 및 실물인수도 절차



자료: CME 홈페이지(www.cmegroup.com)

□ 선물가격과 현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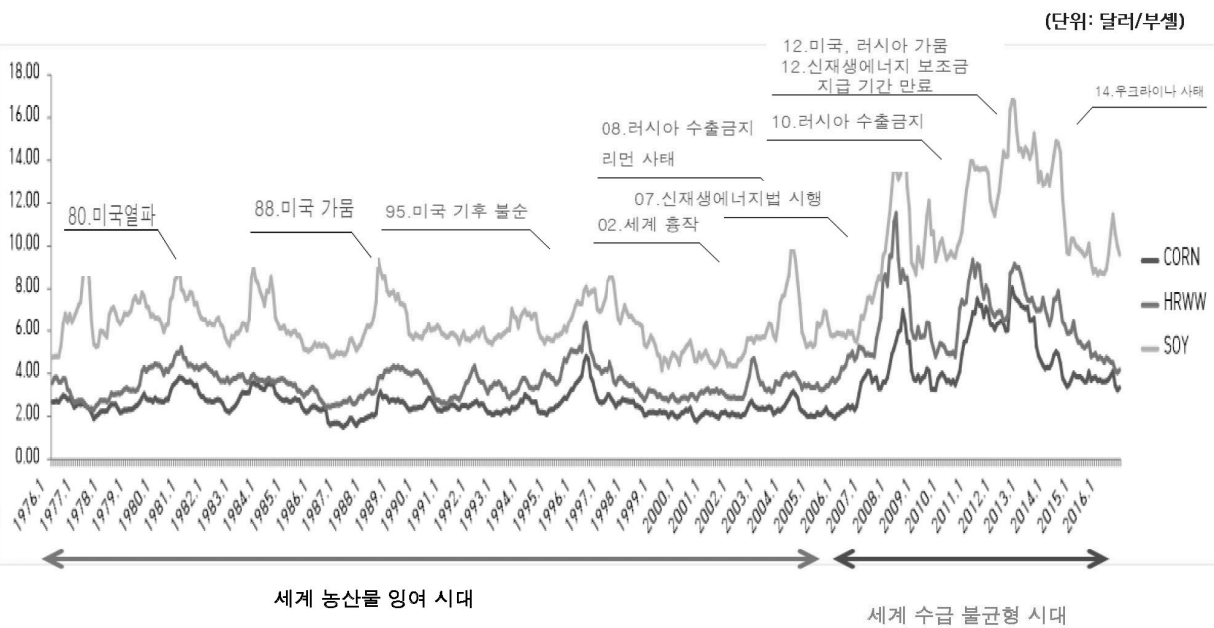


- ❖ 현물가격 = 선물가격 + BASIS (BASIS = 현물가격 - 선물가격)
- ❖ BASIS는 현물가격과 선물가격간의 차이를 조절하는 기능
- ❖ 운임, 처리 및 저장 비용, 품질, 현지 수급상의 요인 등 여러가지 변수들이 BASIS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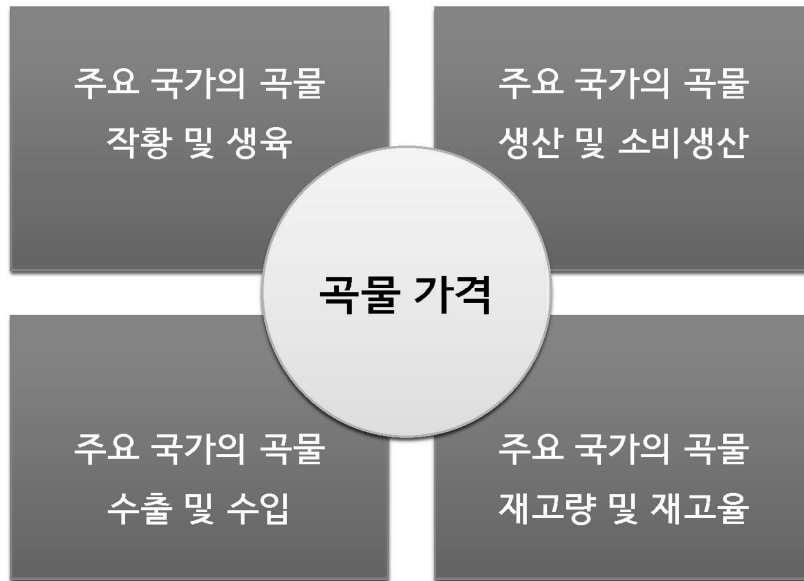
□ 현물 가격 형성



□ 가격 변동 요인



□ 수급 요인



□ 외부시장 요인



□ 선물 가격과 외부시장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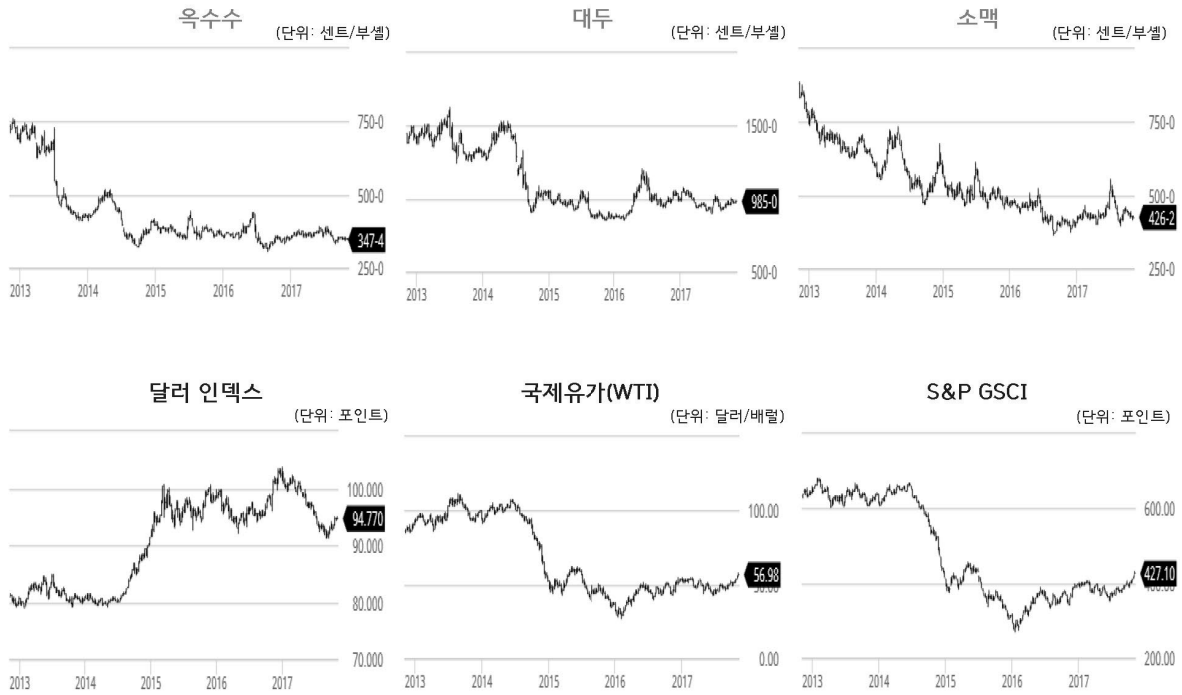


그림: barchart

□ 가격 변동 위험 회피 (헤지 거래)

- 선물 거래를 통해 현물 시장의 가격 변동 위험 회피
- 현물 포지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나 이익을 선물의 반대 포지션에서 이익이나 손실로 상쇄하여 가격을 고정시키는 것
- 헤지 거래를 위한 선물 포지션의 구축이 현물 시장의 위험 축소와 기대 수익의 제한을 가져옴
- 매입 헤지 (long hedge)
 - 가격 상승 위험에 대비하여 해당 선물을 사는 계약
- 매도 헤지 (short hedge)
 - 가격 하락 위험에 대비하여 해당 선물을 파는 계약
- ※ 단순 투기(speculation) 거래
 - 현물 시장과는 상관 없이 선물 가격의 등락을 이용하여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

□ 계약 방식

- 구매자의 수에 따른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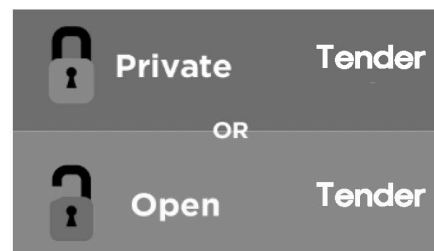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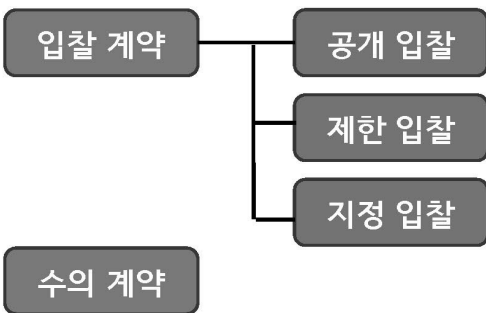
공동 구매

- 규모의 경제성(Economy of Scale) 도모
- 운송선박의 크기에 따른 차이
- 가격 등락에 따른 개별구매의 위험분산
- 구매자의 구매교섭력(Bargaining Power)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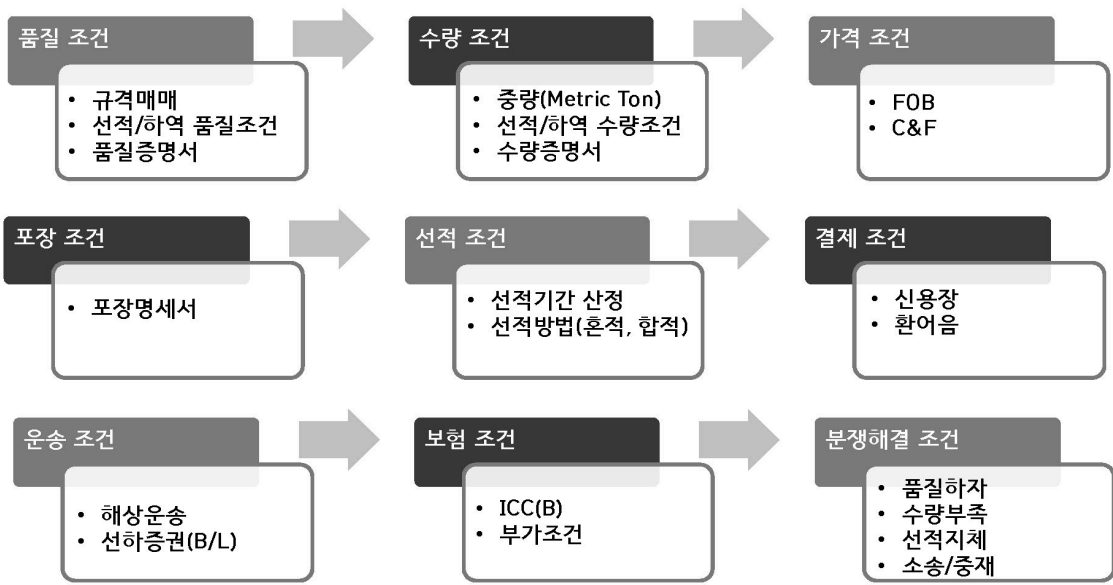
개별 구매

- 소형 벌크선 또는 컨테이션을 통한 구매
- 구매자의 구매교섭력(Bargaining Power) 강화

- 입찰 실시 여부에 따른 구분



□ 계약 조건



□ 국제 규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COTERMS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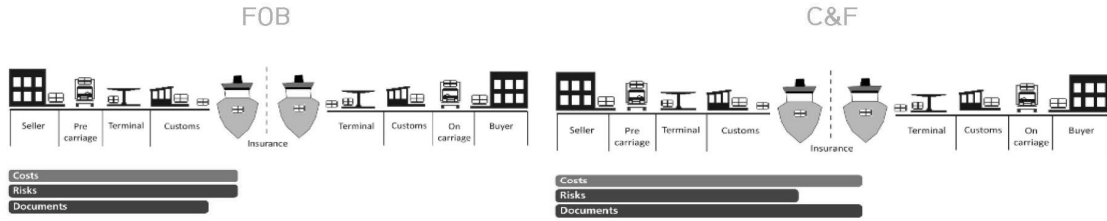


그림: GLOBALNEGOTIATOR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선하증권에 관한 통일조약

협회적하약관 (I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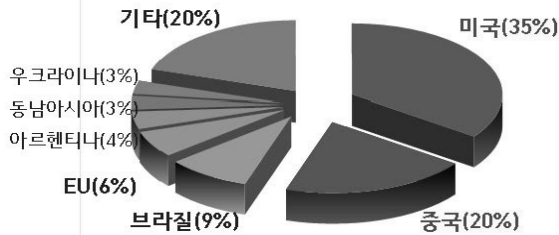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 협약

곡물거래업협회(GAFTA)의 표준계약

□ 곡물 유통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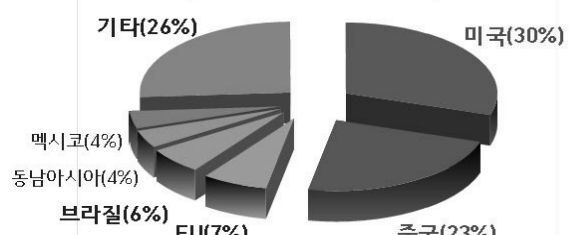
국가별 옥수수 생산 비중

총생산량: 10억3880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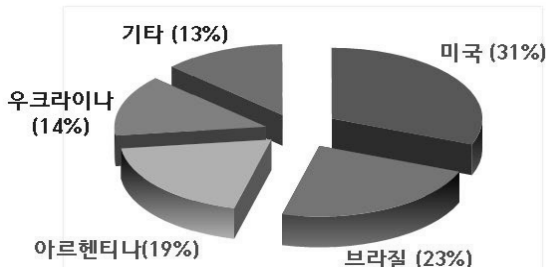
국가별 옥수수 소비 비중

총소비량: 10억6483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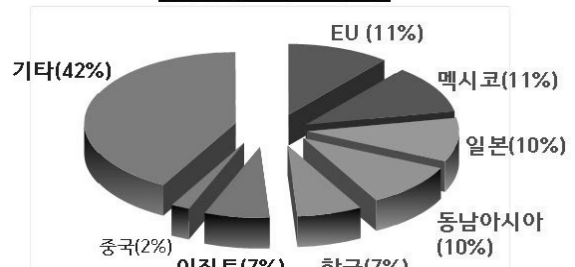
국가별 옥수수 수출 비중

총수출량: 1억5071만 톤



국가별 옥수수 수입 비중

총수입량: 1억4581만 톤



자료: USDA, WAS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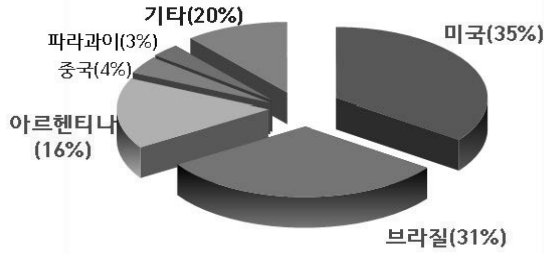
국제 곡물시장의 구조와 특징

국제 곡물 교역 형태

□ 곡물 유통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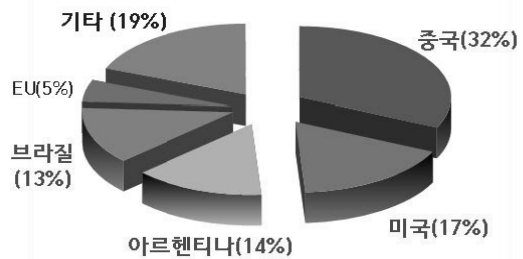
국가별 대두 생산 비중

총생산량: 3억4788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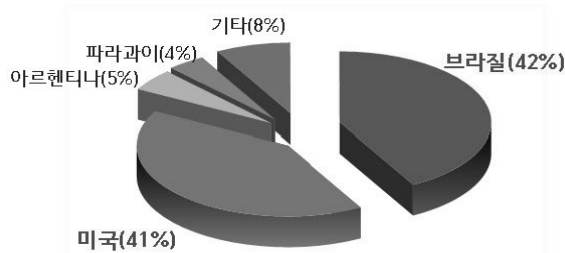
국가별 대두 소비 비중

총소비량: 3억4437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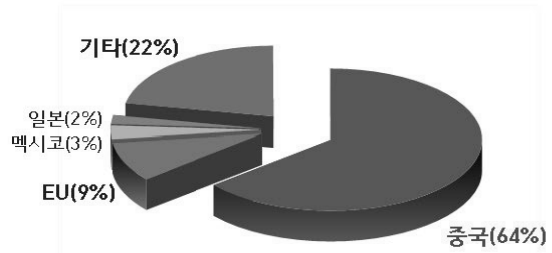
국가별 대두 수출 비중

총수출량: 1억5097만 톤



국가별 대두 수입 비중

총수입량: 1억4864만 톤



자료: USDA, WASDE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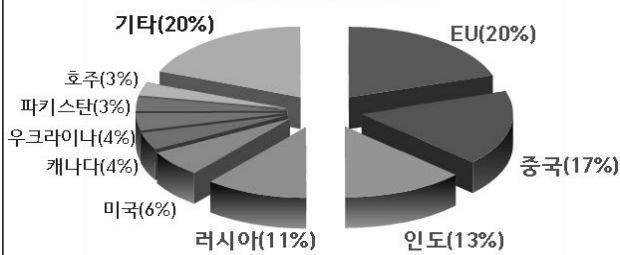
국제 곡물시장의 구조와 특징

국제 곡물 교역 형태

□ 곡물 유통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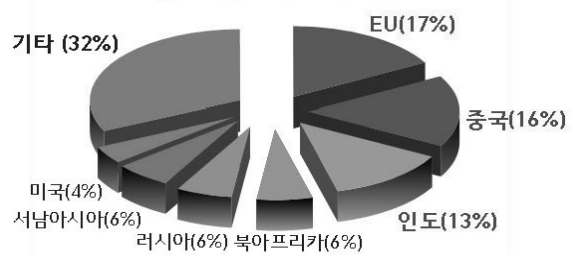
국가별 소맥 생산 비중

총생산량: 7억5119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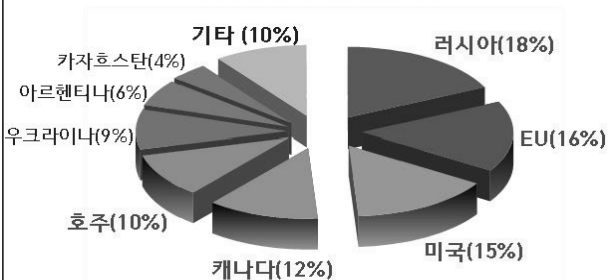
국가별 소맥 소비 비중

총소비량: 7억3963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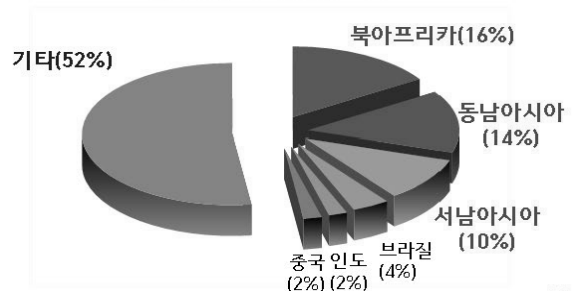
국가별 소맥 수출 비중

총수출량: 1억8004만 톤



국가별 소맥 수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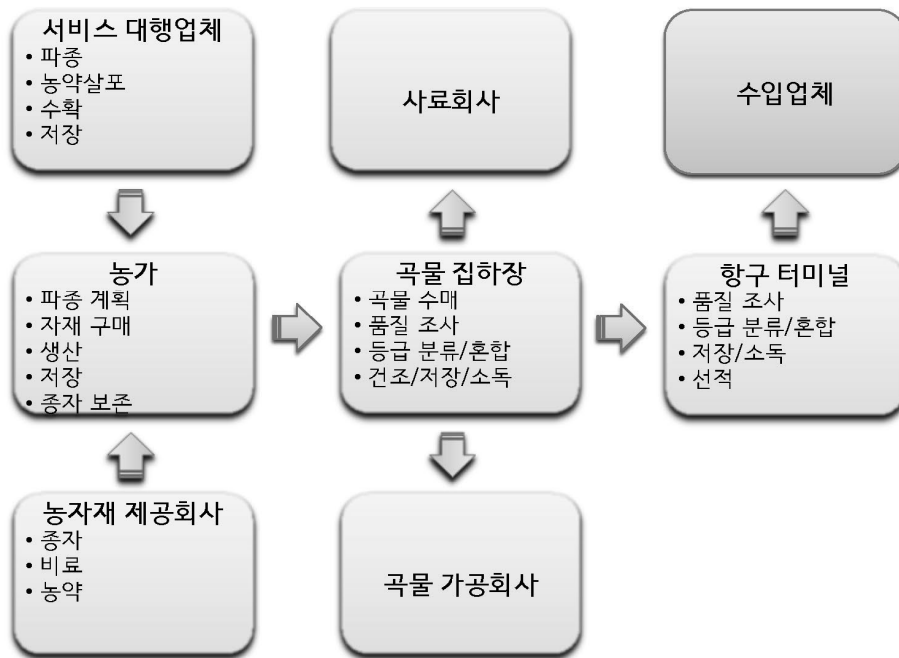
총수입량: 1억7893만 톤



자료: USDA, WASDE

20

□ 곡물 유통 구조



□ 곡물 유통 구조

생산자 → 현지 곡물저장소

산지 엘리베이터

터미널(리버) 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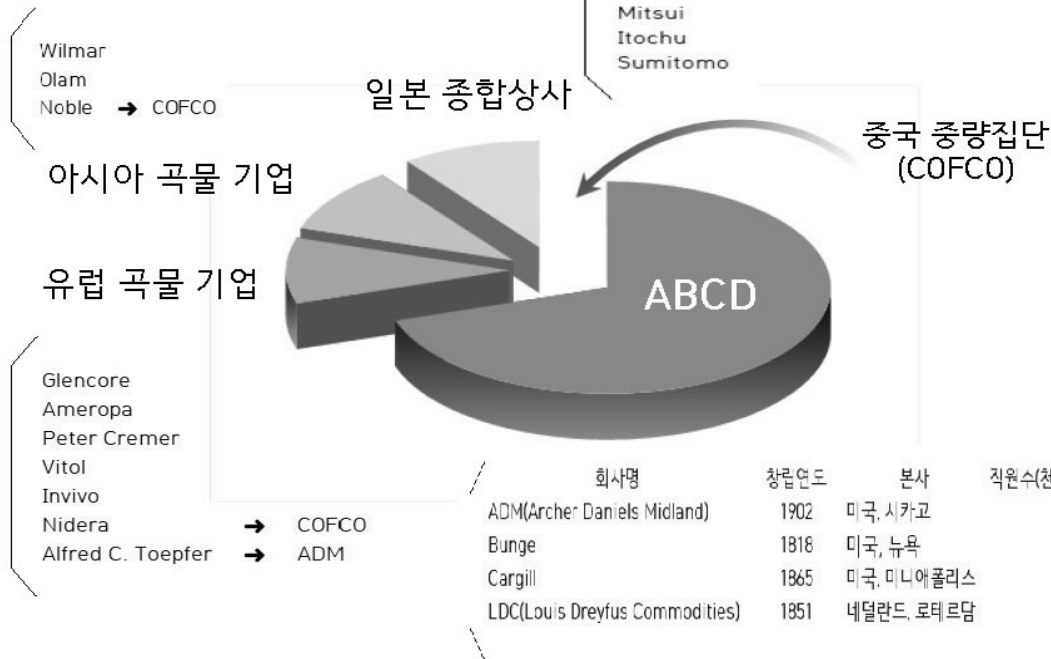
수출 엘리베이터

목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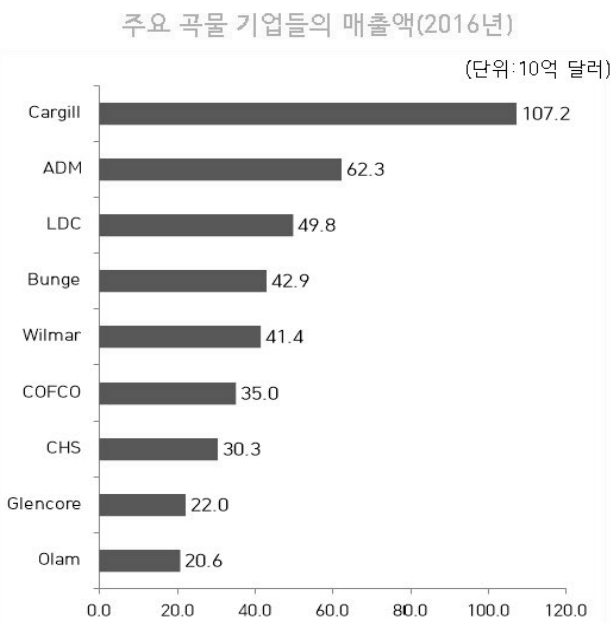
곡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미국				파종기	생육기	수확기						
중국	북부			파종기	생육기	수확기						
	남부		파종기	생육기	수확기							
브라질	1기작	생육기	수확기							파종기		
	2기작	파종기	생육기	수확기								
EU				파종기	생육기	수확기						
아르헨티나			수확기							파종기	생육기	
대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미국				파종기	생육기							수확기
브라질		생육기	수확기								파종기	
아르헨티나		생육기		수확기							파종기	
중국				파종기	생육기	수확기						
인도						파종기	생육기	수확기				
소맥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EU	겨울일			생육기	수확기						파종기	
중국	봄일			파종기	생육기	수확기						
중국	겨울일		생육기		수확기						파종기	
인도	겨울일			생육기		파종기	생육기	수확기				
미국	봄일			파종기	생육기	수확기						
미국	겨울일			생육기	수확기						파종기	
러시아	봄일			파종기	생육기	수확기						
러시아	겨울일		생육기		수확기						파종기	

자료: FAO, AMIS

□ 곡물 메이저 독점 시장의 변화



□ 곡물 메이저 독점 시장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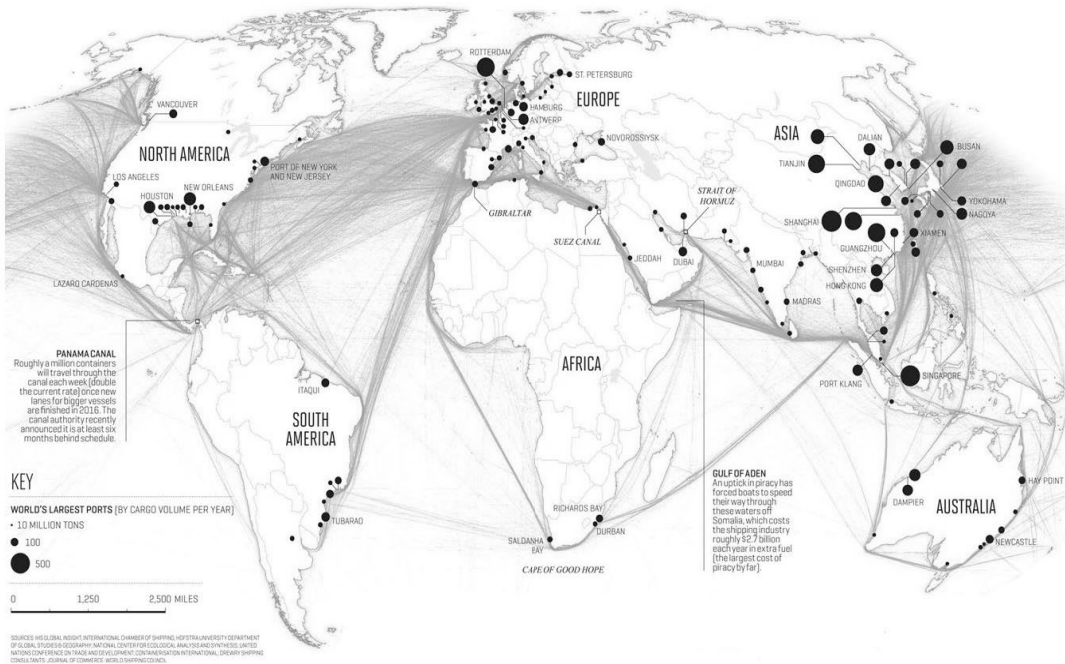


자료: WSJ

곡물 기업간 인수합병 가속화

- 2009년 5월, ABB Grain → Viterra
- 2010년 12월, AWB → Cargill
- 2012년 3월, Viterra → Glencore
- 2012년 5월, Gavilon → Marubeni
- 2012년 12월 GrainCorp. ✕ ADM
- 2014년 2월 Nidera(51%) → COFCO
- 2014년 4월 Noble(51%) → COFCO
- 2015년 7월 CWB → G3
- 2016년 3월 Noble(49%) → COFCO
- 2016년 8월 Nidera(49%) → COFCO
- 2017년 Glencore의 Bunge 인수 타진

세계 곡물 교역 경로



감사합니다.

agscouter@naver.com

종합토론 좌장



전북대학교
신동화 명예교수

학 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식품공학과 공학박사

경 력

- 현) (사)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회장
- 현) (사)한국장류기술연구회 회장
- 현) 신동화식품연구소 소장
- 현) 식품산업진흥위원회 위원장(농림수산식품부)
- 현) 식품안전Committee위원장(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현) (사)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종신회원
- (사)한국식품안전협회 회장
- (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장
- (사)한국식품과학회 회장
- 전북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현 명예교수)



토/론/문

미국소맥협회 대표 강창윤





Profile

강창윤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법학과)

경력

범양상선 근무(부정기선 영업본부)

뉴욕법인 근무

STX(주) 곡물사업본부 곡물 팀장 (TRADING)

해외곡물정보 분석위원회 자문위원

현) 미국소맥협회 한국대표부 대표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writing.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writing.

토/론/문

협성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고재모**





Profile

고재모

학력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과(석사)

中華民國 國立中興大學 농업경제학과(박사)

경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PIE(국제경제전문가회의) 전문위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CSU-Bakersfield) 초빙교수

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연구·자문위원

현)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이사,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한중사회과학학회 이사

현)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현) 협성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이번 세미나의 제목은 “식량안보세미나” 입니다. 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문의 주제는 ‘곡물수급’입니다. 사실상 동일한 주제를 놓고 성명환 박사는 세계 전체의 수급 현황과 전망을, 김민수 대표는 국제곡물시장의 구조와 특징을, 오정규 차장은 한국의 곡물조달 정책과 현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중복 설명을 피하면서, 세계시장 현황과 전망 분석 → 세계시장 구조와 특징 연구 → 한국의 정책과 과제라는 논리적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필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 세미나를 주관하는 분들의 사전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저는 3편의 발표문을 읽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문하고, 추가적 설명이나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세계 곡물수급 현황 및 전망에 대한 견해에 차이가 있는가?

- 성명환 박사는 발표문에서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구규모, 1인당 소비량 추이, 경지면적, 단수 등)을 분석한 후 중장기적으로 세계 곡물수급 및 가격이 안정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 김민수 대표는 1976~2016년까지의 가격변동 요인에 근거하여 대략 2006년 이후 세계 곡물시장은 수급불균형시대에 접어들었고, 앞으로도 불안정한 가격변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 오정규 차장은 한국의 안정적 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세계 곡물수급의 불안정을 전제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 세계 곡물수급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가?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가? 한국은 중장기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아니면 단기 변동까지도 고려한 대응에 주력해야 하는가?

2. 성명환 박사의 발표문에 대하여 : 곡물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소득, 생산량, 소비량 등의 요인을 주요 국가,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반영하지 않고 총량 개념으로 파악하여 전망하는 것이 오류를 야기할 가능성은 없는가? 한국 경제와 식량안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장기적 영향 분석보다 단기적 분석에 대한 연구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3. 김민수 대표의 발표문에 대하여 : 주요 곡물기업의 수익성은 다른 업종의 수익성과 비교하여 어떠한지?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민간기업 주도의 일본, 국영기업 주도의 중국이 세계 곡물시장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한국이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발표문에서는 주로 막대한 투자 여력과 전문가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일본과 중국은 이 문제를 극복하고 역할 증대를 이루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한국의 선결과제는 무엇인가?

4. 오정규 차장의 발표문에 대하여 : 만약 앞으로 세계 곡물수급 자체가 비교적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빅 데이터의 활용 등으로 세계 곡물수급 불안정성이 사실상 해소되는 단계까지 이룬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정책적 차원에서 ‘안정적 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을 지속해야 하는가?

5. 토론의 결론에 대신하여 : “2030년,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변한다(미래과학기술오픈포럼, 2017. 11. 7)” -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전 지구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를 보는 시각, 대응 방안 등은 이러한 추이와 무관할 수 있는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식량안보와 과거의 그것은 어떻게 다르고 우리의 대응방안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김 한 호





Profile

김 한 호

학 력

서울대학교 경제학사 (농경제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사 (농경제학)

University of Minnesota 대학원 응용경제학 박사

경 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대한민국 국회 입법지원위원 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위원

국가 재정운용계획 작업반 농식품분야 반장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 위원

현) 농림수산식품부 지리적 표시제 심의위원회 위원장

현) 해외농업 조사 심의위원회 위원장

현) 서울대학교 교수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writing.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template for writing.

토/론/문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안 병 일





Profile

안 병 일

학 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학과 졸업(경제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데이비스) 농업 및 자원경제학과 석사
(경제학 박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Agricultural Issues Center 박사후
과정 (Post Doc.) 연구원

경 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경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조교수
OECD 농정자문위원
OECD 농업정책시장작업반회의 정부대표단
입법고시 출제위원
농림수산식품부 DDA/FTA포럼 자문위원
한국식품유통학회, 한국농업경제학회,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한국무역학회 이사
한국농업경제학회 편집간사
국무총리실 정부핵심과제 평가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안전포럼 자문위원
감사원 FTA 국내대책추진실태 감사위원회 자문위원
University of Arkansas, Fulbright 방문교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준수 평가위원

1. 세계 곡물 시장 전망에서의 주요 이슈

- 공급측면: 가뭄과 같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변동, 사막화 물 부족등과 같은 생산 여건의 변화
- 수요측면: 인구증가로 인한 식량수요증가, 개발도상국의 식량수요 증가 및 식량소비 패턴의 변화
 - 인구증가 추세: UN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2100년의 경우 현대 대비 세계인구가 2배 이상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따라서 세계 인구가 필요한 식량수요량은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함.
 - 중국이나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소득 증가는 육류 수요를 증가시켜 사료용 곡물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 개발도상국의 소득 증가는 직접적으로 식량수요를 촉발하게 될 것임.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소득 상승과 이로 인한 곡물 수요증가는 눈여겨 볼 대목임.
-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늘어나고 있는 수요에 비해 공급여건은 보다 변동성에 취약함. 국제기구의 단기 전망에서는 향후 10여 년 간은 국제 곡물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 등의 곡물시장에의 충격이 가해질 경우 가격 폭등이 재현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함.

2. 해외 곡물조달 사업에서 고려해야 할 점

- 곡물조달 사업을 직접적으로 우리나라가 참여해서 주도해야 할지는 비용/편익이라는 틀에서 두 가지 상반된 견해로 바라볼 수 있음.
 -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강조하고자 할 경우: 이 경우 비용/편익 측면에서 보면 투자 타당성이 떨어지더라도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한다면, 이는 불안정한 국제곡물시장의 충격에서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시장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공공재를 확보하는 것과 같다고 받아들일 수 있음. 이 경우 곡물조달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세금 등 공적인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 직접적인 투자수익을 강조할 경우: 이 경우 최대로 투자할 수 있는 사업기간 내에 비용을 초과하는 투자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이 유도됨.

- 우리나라의 곡물조달 사업 추진에는 두 가지 시각이 혼재되어 왔음. 따라서 국제 곡물시장이 매우 불안하여 곡물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전자의 시각이 우세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곡물조달 사업을 추진했으며, 상대적으로 국제곡물시장이 안정적이면 사업 추진에서의 직접적인 경제적 타당성 여부가 부각되었음.
- 따라서 이러한 상반된 견해 중 어떤 것을 우선할지에 대해 사전적으로 국민적인 합의와 동의를 선행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과거에 겪은 동일한 시행착오가 반복될 것임.

토/론/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과장 전한영





Profile

전한영

학력

서울대학교 농학과 졸업
제35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경력

前) 농업협상과, 식품산업정책과 등(사무관·서기관)
前)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
前) 농림수산식품부 전문교육과장
前)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과장
前)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
前)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장
現)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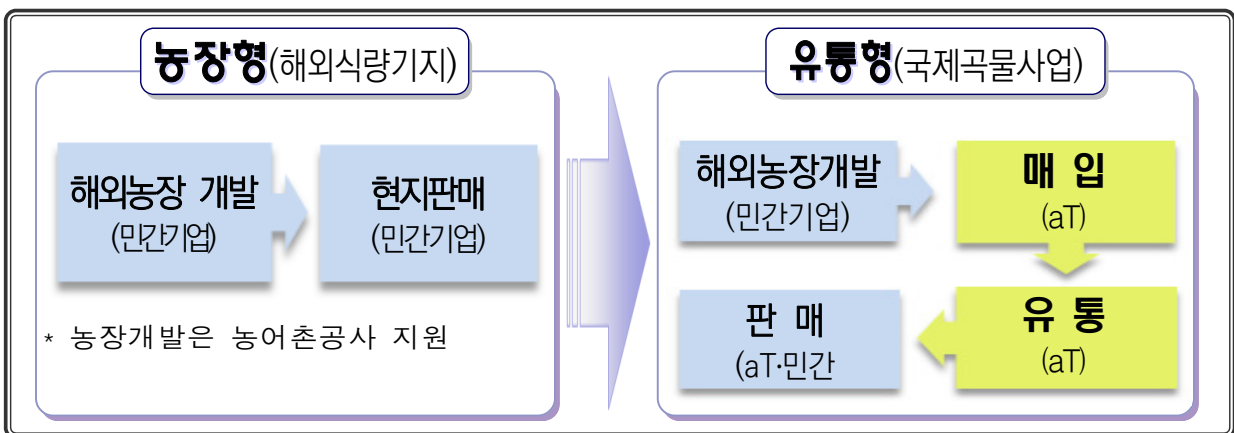
해외곡물의 안정적 확보 및 도입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

1 해외곡물 확보 정책 추진 배경('09~)

- (배경) 우리나라는 연간 14백만톤 이상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어, 세계 곡물시장 변화에 민감하며 곡물 수입도 일부 국가에 편중
 - 대형 기상이변 발생빈도 증가, 바이오에너지 및 중국·인도 등 거대 신흥국 곡물 소비 증가 등으로 식량 수급 불안 요인 상존
 - 곡물 수입국 편중(미·호·브·캐 등 수입의존도 80% 이상) 및 곡물메이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제 곡물가 급등시 직접적 영향 우려

- (대응) 자급률 제고와 함께 해외로부터의 안정적 곡물 조달망 확보 필요성이 대두 되어 해외농업개발('09~), 국가곡물조달시스템('11~) 구축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국제곡물 관측 시스템도 마련
 - 중장기적으로 해외농업개발과 국가곡물조달의 연계를 통해 해외곡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반입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수립·운영

[해외농업개발 및 곡물조달 연계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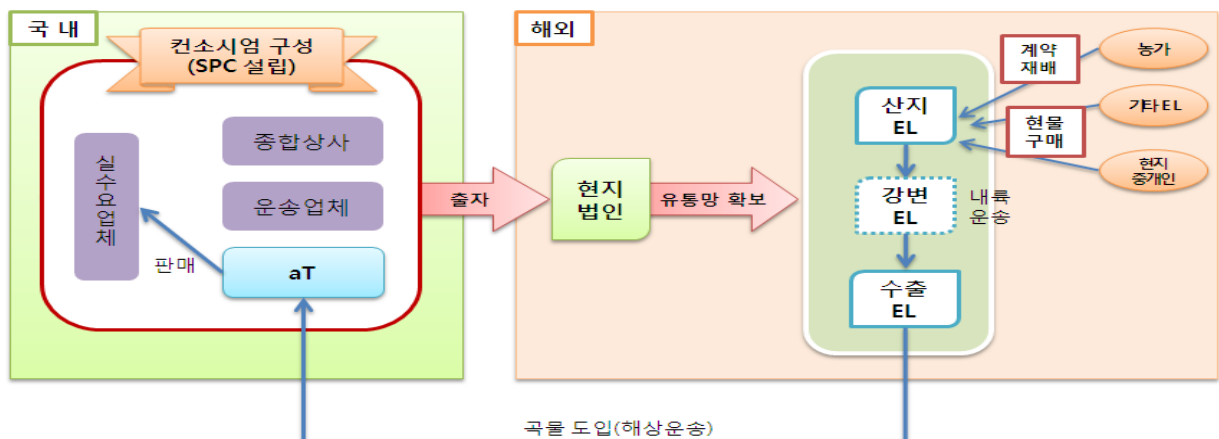


- 국제곡물 정보수집을 위한 해외모니터링 강화, 국제곡물 관측 모형 개발을 통해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능력 확보 추진

참고 1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운영 계획

구 매	저 장	운 송	판 매												
<p>(단위:천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국 가</th> <th>목표물량</th> </tr> </thead> <tbody> <tr> <td>미 국</td> <td>2,250</td> </tr> <tr> <td>브 라 질</td> <td>600</td> </tr> <tr> <td>우크라이나</td> <td>1,000</td> </tr> <tr> <td>연 해 주</td> <td>150</td> </tr> <tr> <td>계</td> <td>4,000</td> </tr> </tbody> </table> <p>해외 농업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형과 연계하여 민간기업이 개발한 해외농장 생산물을 우선 구매추진 → 확보한 해외식량기지 활성화 유도 <p>현지농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농민과 계약재배 등을 통해 물량확보 → 안정적 물량확보로 식량안보체계강화 	국 가	목표물량	미 국	2,250	브 라 질	600	우크라이나	1,000	연 해 주	150	계	4,000	<p>산지엘리베이터</p> <p>곡물저장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국가별 확보한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구매한 물량을 적기에 수출/판매할 수 있도록 함 <p>농장지원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개발농장의 현지 적응력 극대화 ○ 계약재배 농민과의 질 높은 유대관계로 필요곡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조성 	<p>강변엘리베이터</p> <p>수출엘리베이터</p> <p>현지내륙운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보한 물량의 적기 공급계획 수립 - 내륙운송루트파악 - 내륙운송수단확보 <p>해상운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운송비는 가장 큰 비중 차지 ○ 적기·적량의 국내 도입계획 수립 - 적정규모 선박확보 - 경쟁력 있는 운임 	<p>국내수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실 수입요업체 (제품 생산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필요 물량을 공급 <p>현지소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에서 확보한 곡물 중 일부는 현지소비 추진 <p>제3국 판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곡물 수입국 중심으로 주변국에 수출
국 가	목표물량														
미 국	2,250														
브 라 질	600														
우크라이나	1,000														
연 해 주	150														
계	4,000														



2 국가곡물조달 추진 현황

□ 추진 경과

- '11년부터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를 위해 곡물 엘리베이터 매입, 지분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으나 성과 지연
 - * 사업기간 '11년~계속, 총 사업비 1,784억원(국비 750억원), '12년까지 aT에 642억원 출자
- 미국 수출 엘리베이터 지분을 보유한 국내기업과 aT간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했으나, 해당기업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지분확보 실패
- 과거 추진하였던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의 지원방식, 지역, 품목 등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해외곡물 도입 역량 강화 방안' 마련('14)
 - 개편방안에 따라 '해외 곡물유통망 구축 사업' 계획을 마련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15.1~'16.7월)하였으나, 타당성 미흡 결론

['해외곡물유통망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 (추진경과) 기존 국가곡물조달시스템에서 정부지원 방식, 사업 지역 등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 * 개편방향 : 주곡, 미국시장 진출 → 부원료 포함, 인니, 연해주 등 지역 다변화
- (사업계획) 연해주·인니에 사일로 등 건설(대두, 타피오카), aT·민간업체와 컨소시엄 운영 등 총사업비 512억원
- (조사결과) 경제성분석(B/C 0.78) 및 종합평가(AHP 0.395) 결과, 타당성 미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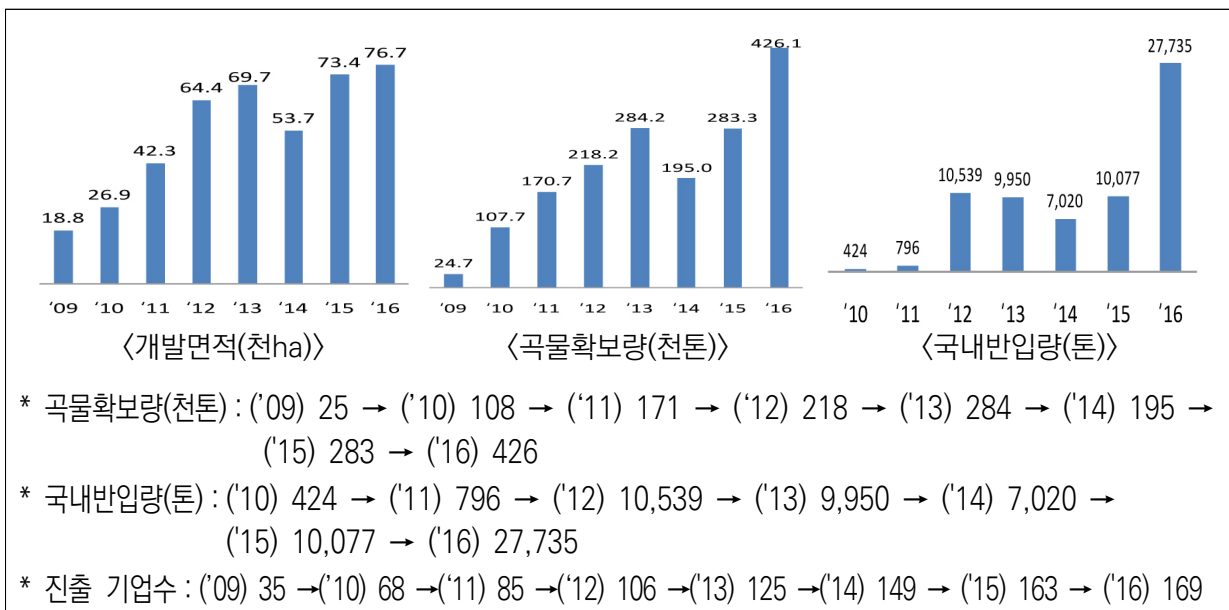
□ 부진 사유 및 시사점

- 독과점 구조인 국제곡물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높은 진입장벽과 곡물시장 활황에 따른 과도한 프리미엄 요구 등으로 사업 부진
- 원활한 국내 조달을 위해 국내 실수요업체 등 민간의 사업참여가 필수적이나, 곡물 사업의 내생적인 리스크, 막대한 자금소요 및 단기적 성과 창출에 대한 부담으로 민간 참여가 소극적인 점도 부진으로 작용
- 당초 목적인 곡물엘리베이터 인수 등의 성과는 이루지 못했지만, 정보축적, 네트워크 구축 등 향후 국제곡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은 의의

3 해외농업개발 추진 현황

□ 추진 실적

- (사업내용) 해외농업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 융자 지원(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17년 융자예산 126억원)
 - * 융자사업비: ('09) 210억원 → ('11) 300 → ('13) 330 → ('15) 140 → ('17) 126
- (진출현황) '16년까지 29개국 169개 기업이 해외농업개발 신고
 - '16년에는 이중 약 50여개 기업이 76.7천ha를 개발, 옥수수·콩·밀 등 426천톤을 생산하고 약 28천톤 국내 반입
 - 개발면적 및 곡물 확보량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만톤 수준에서 정체되었던 반입량이 작년 증가하는 등 일부 성과



□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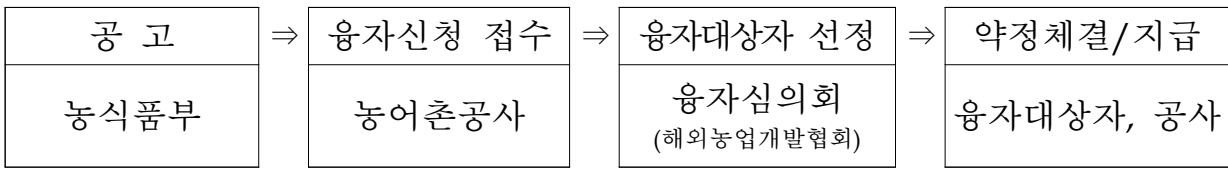
- 해외농업개발사업 목적은 해외 공급기반 확보와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이지만 국내반입 여부만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경향
 - 해외농업개발 특성상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 반입 확대가 쉽지 않음
-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하락세(FAO 식량가격지수 : ('12) 236 → ('16) 147)를 보이며 기업들의 관심 저조와 해외농업자원 확보도 침체

참고 2

해외농업개발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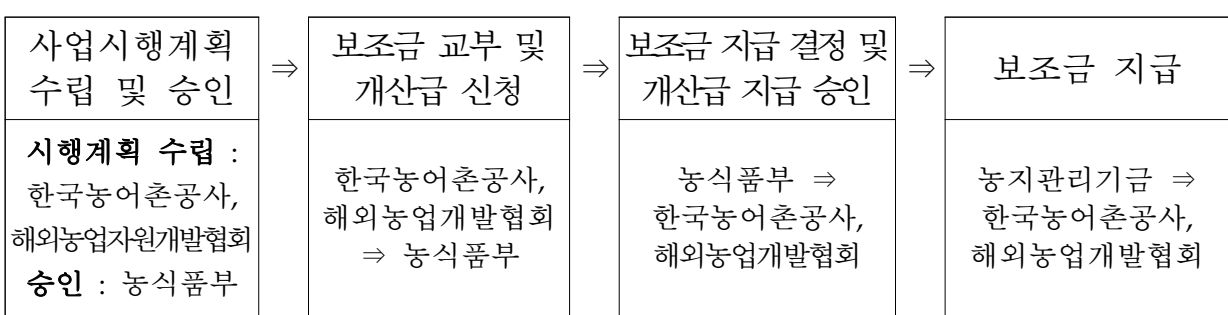
- (목적) 우리 농산업의 외연확장 및 비상시 대비 식량자원의 해외 공급선을 확보하기 위해 농식품기업 해외진출 지원
- (용자사업 : 126억원) 해외농업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저리융자 지원(연리 2%, 5년거치 10년 상환)
 - 해외 농·축산물 개발을 위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 농업지원개발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대상
 - * 용자 필요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부대시설, 건조·저장·가공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영농비(종자·비료·농약대 등)

〈용자지원절차〉



- (보조사업 : 25.98억원) 민간기업 투자지역에 대한 농업환경조사, 인력양성, 기술·정보 교환을 위한 워크숍 등의 보조 지원
 - 전문인력양성(373백만원), 농업환경조사(507), 정보제공(158), 사업활성화 연구(150), 용자업무(122), 영농지원센터(610), 사업운영(666)
 - * 보조 100%(단, 농업환경조사는 보조 70%, 자부담 30%)

〈보조사업 추진절차〉



4 국제곡물관측 및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현황

□ 사업개요

- (목적) 기상이변 빈도 증가 등 국제곡물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안정적 곡물 확보 기반 마련을 위해 국제 곡물관측 사업 추진
- (사업기간) : '12 ~ 계속 ('17년 사업비 : 909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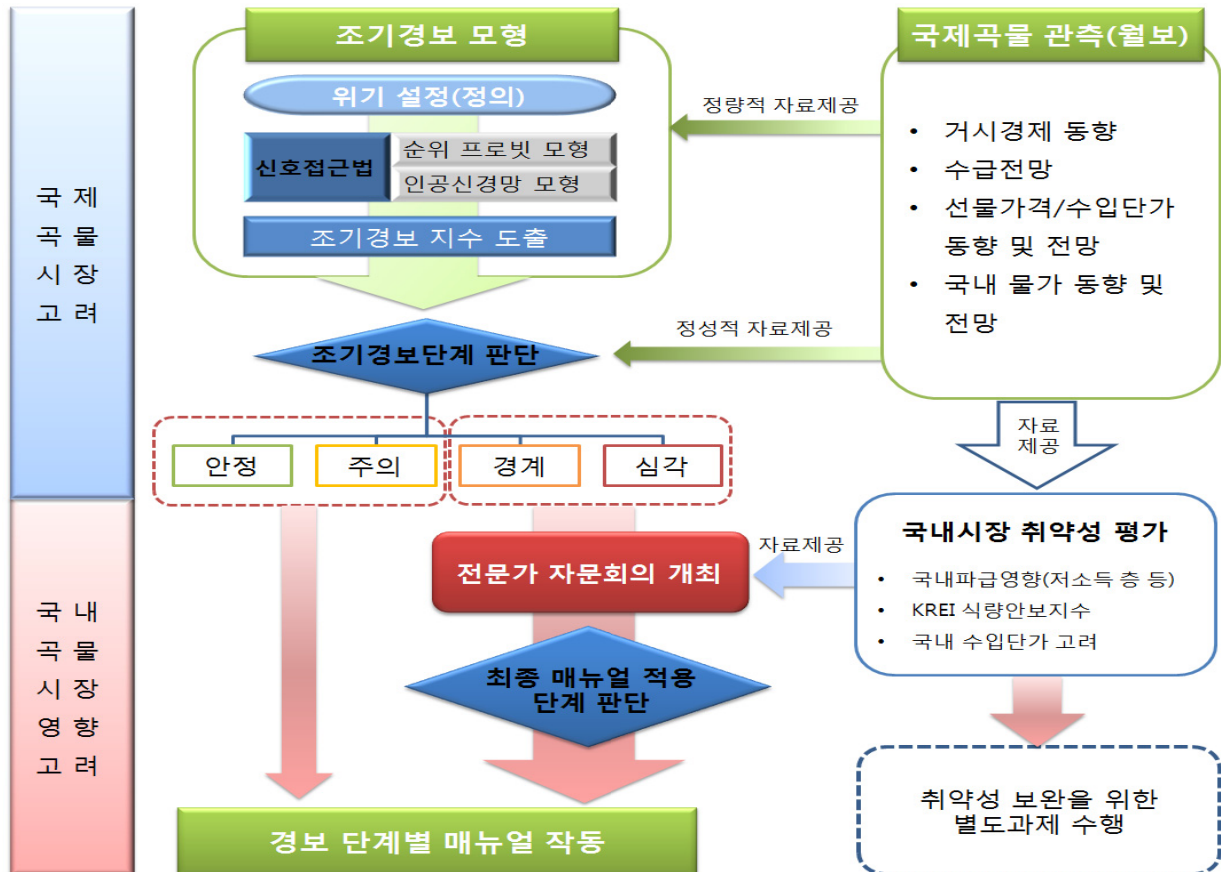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11년 곡물 수입가격 급등('10~'11)에 따라 '유사시 식량안보 매뉴얼' 수립 계획 발표
- (추진 경과) KREI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조기경보지수 개발, 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본격 운영('13~'15)
 - * ('13) 국제곡물가격 전망모형 DB 구축(6월), 미래선물가격지수·전망모형 개발(8월)
 - * ('14) 전문가 자문회의(4~11월, 11회), KREI 연구용역을 통한 조기경보지수 개발(4~10월), 위기대응 매뉴얼안 마련(11월)
 - * ('15)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운영(1~7월), 본격 가동(8월~현재)
- (주요 내용) 조기경보지수 등을 활용하여 국제 곡물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국제곡물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조기경보단계 및 대응방향 결정
 - * 위원회 구성('15.8) : 농식품부, 기재부, 농업관측센터(KREI), aT, 전문가, 관련 업계 등
- 조기경보단계(4단계 : 안정·주의·경계·심각)별로 국제 곡물시장 정보제공 및 공급, 소비·유통, 협조체계* 등 각 부문별 대응 방안 제시
 - * 협조체계 : (농식품부) 총괄, (기재부) 가격안정, (KREI) 곡물관측, (aT) 수입선 확보 등

참고 3

국제곡물 조기경보체계 개요

〈 국제곡물 조기경보체계 개념도 〉



〈 조기경보단계별 대응 매뉴얼 〉

단계	상황	주요 대응 방안
안정	수급과 가격이 안정적인 상태	○ 상시 모니터링
주의	다소의 수급 불균형과 외부요인으로 경계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 필요시 국제곡물 속도 발행 ○ 국영무역 중심 수입선 다변화 유도 ○ 할당관세, TRQ 증량 등 조치
경계	상당한 수급 불균형 등으로 국내물가 상승이 우려, 또는 특정 품목에서 흉작 발생 및 수입 대폭 감소	○ 매점·매석 및 가격단합 등 모니터링 강화 ○ 긴급 수입선 확보방안 모색 ○ 재외공관 통해 수출국에 협조 요청
심각	현저한 수급 불균형 등으로 식품·사료 구매 비용 부담이 크거나, 2개 이상 주요 품목에서 흉작 발생 및 수입 대폭 감소	○ 국영무역 품목 긴급수입 ○ 통상규격 이외 물품 유통 허용 ○ 식료품 가격 인상 자제 유도

5 향후 추진 방향

-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성, 낮은 자급률 등에 따라 해외로부터 안정적인 곡물도입 필요성 지속 대두
 - 다만, 그간의 정부주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해외곡물사업 진출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해외 곡물의 원활한 도입 및 국제곡물 시장 대응 역량을 제고할 필요

□ 민간중심의 해외곡물 안정적 확보 및 도입방안 연구

- (목적) 민간 중심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여건 및 해외사례 분석을 실시하고, 민간 중심 도입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양성, 정보체계 구축 등 정부 지원 방안을 모색
- (기간, 연구기관) '17.8월 ~ 12월(5개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 (활용계획) 연구 결과는 향후 해외곡물 도입 및 관련 정책 추진 시 반영

□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 수립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5조에 따라 연내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18~’22)’을 수립할 계획
 - 그간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정책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사업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 연해주 등 중점지역 육성, 신규 판매처 확보 등 안정적 식량기반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국내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지원에 주력

□ 국제곡물 관측 및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 조기경보 지수 예측력 강화, 전문가 중심의 검증 체계 보완, KREI, aT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점검 등을 통해 정확한 분석과 정보제공으로 민간의 정보 활용도 및 선제적 대응력 증대 유도

문재인정부 농정 방향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 쌀 수급안정
- 가축질병 대응
-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체계 혁신
- 소득,경영 안전장치 강화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 청년농업인 육성
- 기술 융복합 스마트 농업 육성
-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 축산 사육 환경의 근본적 개선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식품, 외식산업 육성
- 국가, 지역 푸드플랜 추진
- 국민 식생활과 영양 지원 강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조성

- 살고싶은 농촌공간 조성
-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문재인 정부의 쌀 산업 발전 방향 - 1

시장격리 등 수확기대책, 목표가격인상 등을 통한 쌀값 정상화, 한시적 쌀 생산조정제로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 및 쌀 직불제 개편으로 농정개혁 뒷받침

1

- ('17) 금년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 등 선제적 수확기 수급 안정 방안 추진

2

- ('18-'19)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생산조정제 한시 도입
 - * 생산조정제 : ('18) 5만ha ('19) 10만ha (누적)
 - 쌀을 대체할 조사료, 콩 등 논 재배 적합 품종 개발 보급, 타작물 기반 조성 및 기계화, 밭작물 신기술 지원 강화
 - * 사료용 벼 : ('17) 7품종 ('22) 11, 콩 잡곡 맥류 : ('17) 27품종 ('22) 61

문재인 정부의 쌀 산업 발전 방향 - 2

3

- ('19) 쌀값 안정 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차기('18-'22년) 쌀 목표가격 설정
 - 물가상승률 반영 등 목표가격 변경효과 분석, 의견수렴 후 농업소득보전법령 개정 및 정부 목표가격안 확정('18상)

4

- ('20) 쌀 변동직불제 개편 포함, 공익형 직불제 확대 및 개편 추진
 - 쌀 생산조정제 추진 이후 수급상황 분석을 토대로 쌀 변동직불제 개편, 소득보전형 직불을 농지관리직불(가칭,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 추진('20 -)
 - * 논 고정직불, 쌀 고정직불 등

5

- ('17-'22) 쌀 소비촉진을 위한 가공용 쌀 쌀가공식품 수요 확대
 - 쌀 가공제품 개발 유통 환경 조성, 소규모 양조장 지원 확대 및 온라인물 전통주 판매 활성화 지원

11

2017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 시장격리

조속한 시장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35만톤) 외에 추가물량 **37만톤** 시장격리

● 민간 비 매입

총 3.3조원(정부 1.4, 농협 1.9)의 **RPC 비 매입자금(용자) 지원**으로 농가의 비 판매 애로를 최소화

● 공공비축제 개선

쌀 적정생산 및 고품질화 유도,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재고 관리

복지용·가공용·사료용 쌀 공급확대 등 특별재고관리 등을 통해 정부 재고 감축('17.10월p: 182만톤 → '18.10월p: 160)

● 유통질서 강화

수확기 수입밥쌀(중·단립종) 방출 중단(9.21~) 및 수입쌀 등 혼합유통 특별단속 실시(10.10~11.30)

12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writing.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template for writing.